

02 | 발간사



Zoom in

- 06 | 민경자 신임 원장 취임식 현장
- 10 | 안희정 도지사, '성평등·여성정책을 말하다'
- 14 |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소개 1
- 33 |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소개 2



Special issue

- 42 | **특집 1** 충남의 자살현황 및 과제
 - 우리나라의 자살현황 및 과제
 - 충남 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과제
- 58 | **특집 2**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 여성 정치시대 '지방의회 여성의원 700인 시대'
 - 출산파업 '저출산 시대를 말하다.'
 - 저출산 관련 기관 탐방



Reportage

- 68 | Issue&Issue 여성! 정치를 말하다.
 - 충청남도 기초의원 윤금이
- 74 | 여성관련 기관탐방
 - 여성쉼터
 - 천안 소망의 집
 - 모이세 이주 여성의 집
 -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 충남 성 상담소
- 84 | 백제의 문화, 충청속으로
 - 금산 인삼축제
 - 성공적 개최를 이룬 2010 대백제전

Inside news

- 90 | 충남여성을 위한 움직임
- 100 |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

발 간 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올 겨울은 참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구요.

제가 민선 5기 안희정 충남정부의 '참여와 소통' 정책을 충남 여성에게 내실 있게 전달하여 충남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원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5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뵈지 못했던 정다운 지역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고맙게도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1999년 개원할 때 개발원에 거셨던 그 큰 기대와 희망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임 원장님들이 이루어놓으신 성과위에 또 다른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 발간하는 이번 호에 지면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충남여성을 만나시게 되는 안희정 도지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도지사의 여성관, 여성정책 비전, 그리고 여성계에 바라는 점 등을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의 성과를 정리하였고 2011년의 계획을 실었습니다. 민선 5기의 '참여와 소통' 정책기조에 맞추어 여성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독려하고 민과 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1년에는 시·군 단위 교육 및 정책간담회를 많이 계획하였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할 것입니다. 연구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지난 지방선거의 성과인 여성의원 700인 시대의 의미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두 주제는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이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여성정치인의 등장은 도전이며 동시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는 또한 고단한 삶을 대표하는 현상인 '자살'에 대한 특집을 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충남이 '자살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극히 개인적인 결단으로 보이는 자살의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번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신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도내 여성관련 기관 탐방기를 실었으며, 2010년 대표적 축제였던 금산 인삼축제와 세계대백제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20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 2011년에도 가져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역동적인 충청남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백제 창건의 주역 소서노의 후예인 충남여성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16개 시군에 울려퍼지는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골고루 잘 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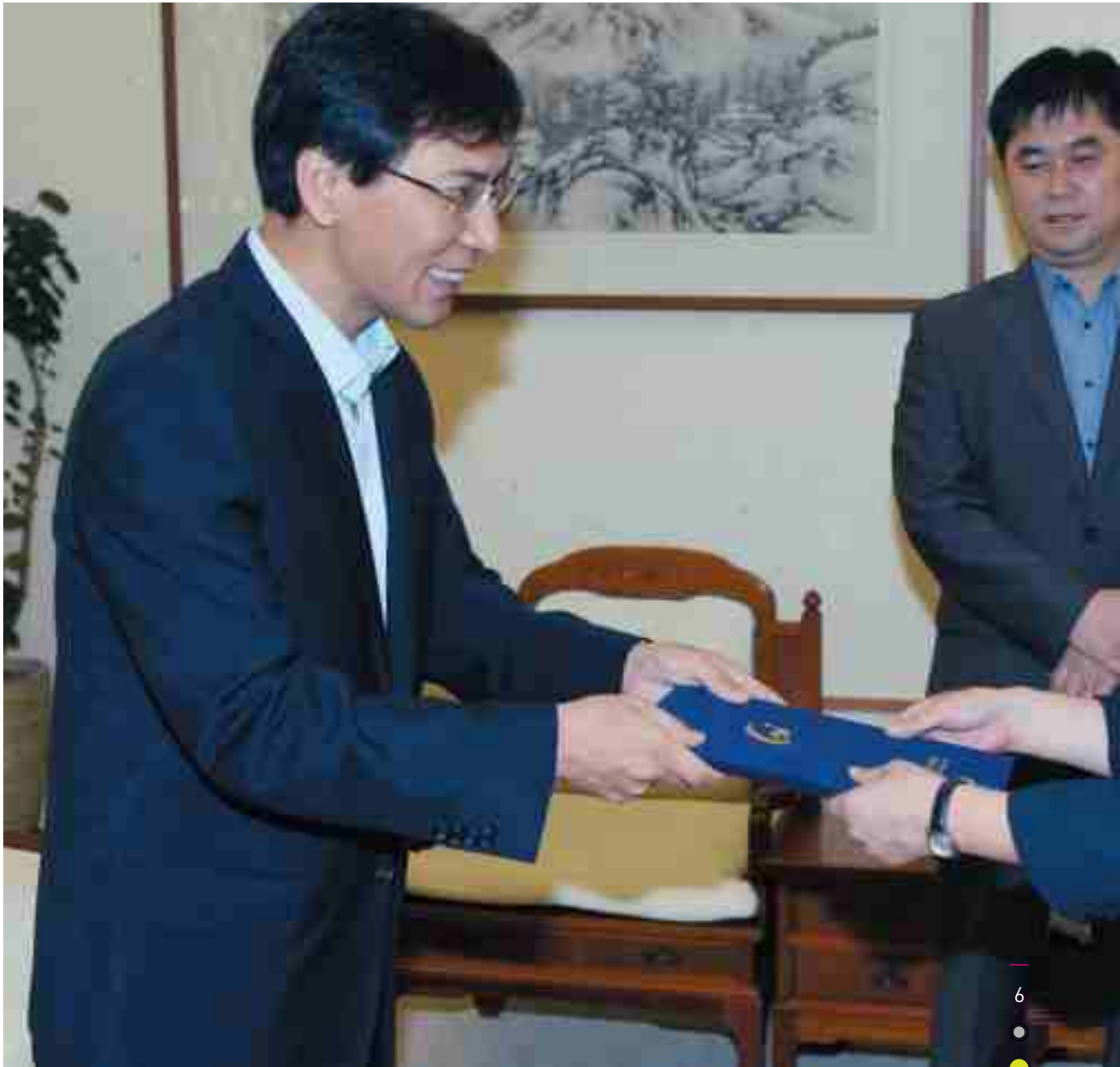
2010
본원소식



민경자 신임 원장 취임식 현장 | 06
 안희정 도지사, '성평등·여성정책을 말하다' | 10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소개 1 | 14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소개 2 | 30



지난 2010년 9월 1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제 5대 민경자 신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날 취임식에서 민경자 신임원장은 본원의 비전과 운영혁신전략에 관한 포부를 피력하며 주위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민경자 신임 원장 취임식 현장

지난 2010년 9월 1일, 본원 세미나실에서 제 5대 민경자 신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날 취임식에서 민경자 신임원장은 본원의 비전과 운영혁신전략에 관한 포부를 피력하며 주위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취임사]

개발원의 연구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 閔庚子 오늘부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제 5대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개발원 이사장이신 구본총 행정부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힘을 모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 7월 개발원 설립 당시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4년 7개월 동안 정책개발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충청북도 여성 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 및 아동정책을 직접 집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연구, 그리고 여성정책 집행을 모두 경험한 흔치않은 경력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창립멤버로 기틀을 잡아놓은 기관에 기관장으로 오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시는 개혁적인 안희정 도지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도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간직하면서 전임 원장님들이 이룩해 놓으신 성과 위에 민경자표 여성정책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정책개발 및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원이 충남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되는 복지사회',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제작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힘을 주는 희망의 샘터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에 머물렀던 개발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과 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매개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연구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을 모범 지방정부로 만들 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모범적으로 들으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및 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하고 민관협치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여성 및 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도정의 다른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봅니다.

둘째,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만이 아니라 도와 상의하여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개발원이 민관협력 추진기구가 되어 일자리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 군을 중심으로 여성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의 보석 같은 여성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을 교육, 훈련시켜 생활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성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및 복지 관련 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관의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여 여성 및 복지관련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및 복지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의 기능인 여성 및 복지 관련 정책개발과 교육, 그리고 앞서 제안한 역점과제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연구' 개념이 아니라 '사업' 개념으로 접근하고, 연구원의 정책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있는 곳으로, 이슈가 있는 곳으로, 개발원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그럴듯한 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원이 '새로운 충남'을 견인해 내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원 및 직원에게 창의성, 열정, 그리고 소통능력을 주문하겠습니다.

본인만이 만족하는 두꺼운 보고서가 아닌, 고민이 담기고 도민의 목소리가 녹아있는 얇은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정책보고서 못지않게 여성을 포함해 도민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성과로 인정하겠습니다. 혼자 가는 능력보다 함께 가는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한 개발원의 비전과 과제들은,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는 지역의 시민단체, 각 분야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및 시군도의 관련부서 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충남을 성 평등 사회, 다문화 사회, 그리고 복지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발원의 연구원 및 직원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큰 만큼 우리도 그만큼 빠르게 변해야 합니다. 고객, 즉 도민중심의, 도민과 소통하는 개발원이 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합시다. 개발원의 발전과 별개로 나의 발전을 꾀하지 말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발원의 발전을 통해 나의 성장을 도모합시다.

이제 우리는 민선 5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민선 5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행, 생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개발원이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 여성계에 바란다.



안희정 도지사와 함께 하는 성 평등 · 여성정책

지난 12월 7일, 성 평등 · 여성정책을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본원의 민경자 원장이 맡아 이끌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앞으로의 성 평등 · 여성정책의 긍정적 변화와 본원, 그리고 충남의 여성들에게 바라는 바를 피력했다.

01

도지사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무리 바빠도 충남 여성을 위해 일하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일인데 함께 해야지요.

02

고맙습니다. 지사님이 충남의 여성 도민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정과 관심을 민선 5기 처음 발간되는 개발원의 소식지에 담을까 합니다. 우선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 평등 충남 실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개인적으로 **충남의 발전이 여성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 즉, 성 평등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요. 그래서 도정 운영에 어떻게 하면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주시고 참신한 사업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03

지사님이 젊고 진보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성 평등이나 여성정책에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참여와 소통' 전략이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 하기도 하구요.

● 네, 저는 도지사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으며 도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성이 오랫동안 도정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시대가 변해서 여성 스스로도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성들의 도정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또 기대합니다.

04

구체적으로 도정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우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대폭 늘려 여성들의 입장과 관점이 주요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발원도 지역의 여성들을 발굴해서 도정에 참여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육아가 여성의 일만은 아니지만 아직은 여성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자리는 돈을 버는 자리일 수도 있고,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요. 개발원에서도 정책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내년 계획을 보니 교육 사업과 시군 순회 정책간담회가 많던데 잘 진행해 주셔서 충남 여성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05

네, 잘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네, 제도적으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별도정원으로 충원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출산휴가자 10명중 8명(80%)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했으며, 현재 육아휴직자 13명중 9명(70%)에 대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와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100% 달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 저소득 계층으로 대체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육아휴직 수당을 현 정서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통해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06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부끄럽게도 충남도는 고위직 여성 비율에서 전국 하위권에 속합니다. 4급 이상 간부여성은 1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민선 5기에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네, 저는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도정 경쟁력과 충남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서도 밝혔지만,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규 여성공무원의 임용 비율이 증가하여 현재 도청의 여성공무원수가 406명(22%)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직은 13명으로 민선 5기 동안 18명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내 여성공무원을 승진우대하고 5급 공채자 임용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07

충남은 아직 여성 부군수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민선 5기에 여성 부군수를 기대해도 될까요?

-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노력하겠습니다.

08

꼭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던 우리 개발원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2개 밖에 없는 개발원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여성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 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여성들이 지역 발전의 희망입니다. 개발원이 희망제작소가 되어 활기찬 충남을 만들어주세요. 전에 몇 번 말했듯이 개발원이 충청권을 아우르는 연구 및 교육기관이 되고 전국의 여성 이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09

네, 지사님의 지지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여성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 우리의 소중한 여성도민 여러분, 저는 충남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복한 변화, 즉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충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성 도민 여러분이 이러한 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 여러분과 함께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동반자가 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잘 기르고 어른들 잘 모시는 그런 충남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제 정책파트너로 정중히 모십니다. 저도 여성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여성들도 지사님을 믿고 역할과 소임을 다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사님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여성 및 성 평등 문제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네, 고맙습니다. 개발원 식구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여성의 역량강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다문화 행복충전 5개년 계획' 과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제 2기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여성이 행복한 충남만들기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 계획수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알리고자 각 연구의 필요성과 대표적 정책안을 기재하였다.



01 다문화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 김영주 박사 < 본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5만 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지역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충남 다문화 공감 행복충전 5개년계획수립 연구』는 충청남도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한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자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진행 사항

- 연구기간 : 2010.1 ~ 2010.11
- 보고서 발간 : 2010. 11월
-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4월, 6월)
 - 충남과 타 지역의 연구자 및 전문가, NGO 활동가 50명

(3) 주요 연구 내용

가. 계획 수립의 배경

-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의 공존과 사회통합 과제의 대두
- 충남의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환경의 구축 필요
- 체계적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의 추진

나. 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는 5개년(2011~2015년) 단위의 기간을 범위로 함
-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임.
- 정책대상의 범위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기타 거주 외국인, 도민이 모두 포함.

다. 비전과 목표

비전은 평등과 소통의 다문화사회 충남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안정적인 정착, 자립역량 강화, 자녀의 지원 및 육성,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한다.

라. 정책과제

■ 10대 정책과제

5대 목표	10대 정책과제
①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① 외국인 주민 인권의 제도적 보장 ②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②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③ 지역사회 적응 지원 ④ 취약계층 생활안정
③ 외국인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⑤ 경제적 자립 지원 ⑥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④ 외국인 주민 자녀의 지원 및 육성	⑦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⑧ 자녀 인재육성
⑤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	⑨ 다문화 인프라 확대 ⑩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 세부 정책과제

①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

① 외국인 주민 인권의 제도적 보장	②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 인권조례 제정 • 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충남) 설치 및 운영 지원 • 이주여성생활센터(그룹홈)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이주민 지원인력,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 세부 정책과제

②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③ 지역사회 적응 지원	④ 취약계층 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의약품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임신·출산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벽지 다문화가족 방문 한국어교육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

③ 외국인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

⑤ 경제적 자립 지원	⑥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영농인력 육성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 • 다문화(농)가공품 개발 및 창업 지원 • 결혼이민자 상급학교 진학 장학금 지원 • 결혼이민자 인턴제 및 직업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홍보대사 운영 •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 외국인유학생 충남 알기 프로그램 • 외국인유학생-한국인가족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양성

④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 및 육성

⑦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⑧ 자녀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예비학교 운영 지원 • 도교육청과 다문화교육 업무협약 체결 및 협의체 운영 • 다문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재혼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입양자녀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외국어 말하기 대회 • 다문화가족 자녀동반 모국방문 및 문화 체험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교육 지원

5 지역사회 다문화 환경조성

9 다문화 인프라 확대	10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사업 • 다언어 생활길라잡이 발간(수정본, 2013) • 다문화도서관 운영 지원 • 다문화체험마을 조성 • 다문화포털사이트 운영 • 다국적 국기게양 사업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업무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 외국인주민 포럼 운영 •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 실국 다문화정책 협의체 운영 • 다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 핵심과제

연도	구분	추진부서
2011년 다문화이해강사 양성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동반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신규 신규 신규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12년 1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충남) 설치 및 운영지원 오·벽지 다문화가족 방문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인터넷 및 직업체험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 결혼이민자 영농인력 육성 다문화도서관 운영지원	신규 신규	여성가족정책관실 농림수산물국 문화관광체육국
2014년/2015년 다문화체험마을조성 재혼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입양자녀 적응 지원	신규 신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02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 김종철 박사 < 본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에서 2005년 1.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과 2007년도에 1.13, 1.26으로 반등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9, 2009년 1.15로 다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학자들은 합계출산율 1.30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함
- 이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상은 국가발전과 사회 구조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이어 2011년부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혹은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요인은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 만혼에 따른 출산력의 감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부족,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가정 문화와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들 요인들의 근처에는 성 평등한 문화와 관행 그리고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은 성 평등한 문화와 관행 그리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52에서 2005년 1.2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과 2007년도 1.35, 1.5로 상승했다가 2008년 이후 1.4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초저출산 기준인 1.30 수준을 넘었으나 인구대체 수준인 2.1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여부에 의하여 1.30 이하로 크게 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에도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충청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2위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로 유추할 수 있음
 - 첫째, 충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한 충효예를 강조하는 유교의 본 고장으로 가족이나 자녀 출산에 대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라남도의 출산율이 높은 것이 이를 반영함
 - 둘째,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서산시, 계룡시 등 신도시의 개발과 이들 지역으로의 기업체 유치로 인한 청장년층의 유입으로 인한 출산 가능 인구의 유입에 의한 것임
 - 셋째,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출산력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다시 말하면, 충남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자녀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는 일가정 양립이나 양성평등 정책에 의한 근본적인 처방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충남의 출산율은 경제상황, 가치관의 변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언젠지 1.30 이하의 저출산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충남에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우리나라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또한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저출산 극복 5개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의 개요

■ 비전

아이로 가득한 부자 충남

■ 목표

충남 출산율 1.60~1.80 수준의 OECD 선진국형 출산·양육 환경의 조성

■ 충남 저출산 정책의 목표

1.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형성
2.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3.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성평등에 기반한 가정과 직장 환경의 조성
4.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체계의 구축

■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의 내용

• 중점 정책

정책 분야	중점 정책
① 결혼·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① 충남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② 엄동필(엄마 아빠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②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③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④ 공공 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운영 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의 구축	⑥ 0-1세 베이비시터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 ⑦ 충남 가족친화형 기업 '탄력시간 근무제' 확산 보급
④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⑧ 권역별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⑨ 충남보육시설 컨설팅단 설치·운영 ⑩ 보육료 지원을 100%를 위한 정부비지원 영유아(0~2세) 보육료 20% 지원

■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의 내용



• 일반 정책

정책 분야	일반 정책
① 결혼·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① 미혼 남녀를 위한 결혼·출산·성 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 ② 충남 교사 대상 저출산 대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③ 기혼 남성을 위한 양성평등적 가정 문화 교육
②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④ 남성 공무원의 단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제 사용 의무화 ⑤ 임신·출산 여성 공무원의 업무배치 우선권 부여 ⑥ 공무원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 행정 인턴제 시행 ⑦ 모성 보호실 및 여성 휴게실 설치 운영 ⑧ 충남공무원 교육원 내 스마트 워크 센터 시범 설치 운영 ⑨ 충남 시군별 출산 장려금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⑩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보건소의 저출산 업무 수행 기능 강화 ⑪ 보건소 중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군별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관련 사업지원 ⑫ 탄력시간 근무제에 의한 토요일 도시형 보건소/지소 진료 지원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의 구축	⑬ 농어산촌 지역의 유희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자연체험학교, 영어/한문교육 특성화 학교 육성 ⑭ 광역형 비혼모 지원 시설 지정 및 운영 지원 ⑮ 지역사회 육아보육나눔터(품앗이 센터)설치 확대 ⑯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④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⑰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대한 대체 인건비 지원 및 통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⑱ 충남 공공형 보육시설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 (도-농형) ⑲ 어린이 자기고장 알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⑳ 만 5세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㉑ 타 지역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농어촌지역 충남보육시설 취업 시 주거 안정비 지원 ㉒ 농어촌 지역의 유희 보육시설을 활용한 영아보육 기능의 활성화 ㉓ 워킹맘을 위한 시간 연장 보육 지도 지침의 변경 및 워킹맘을 위한 우수 보육 사례의 공모·시상

03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송미영 박사 < 본원 연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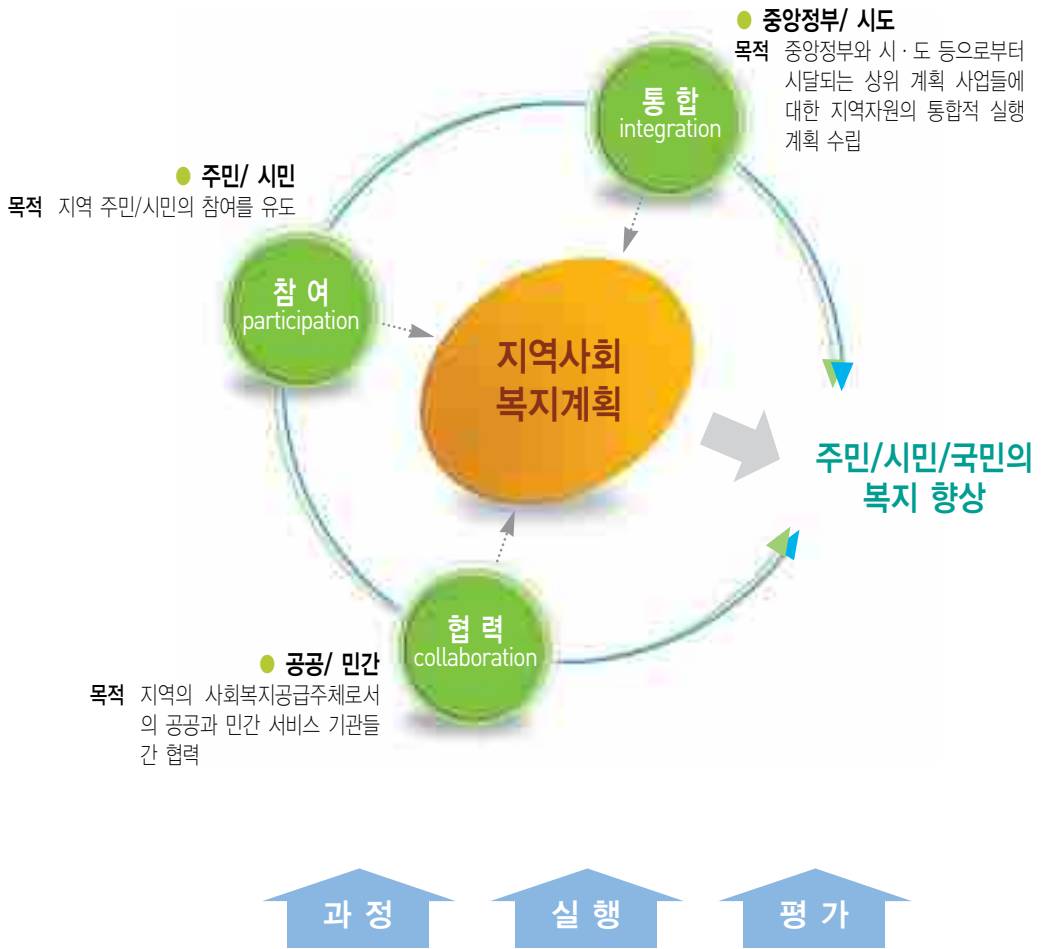


제2기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 5월 7일 시작하여, 12월 1일 최종보고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5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 즉, 첫째, 지역 사회복지계획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둘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셋째,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 7개 분야의 사업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넷째,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이 타시도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수와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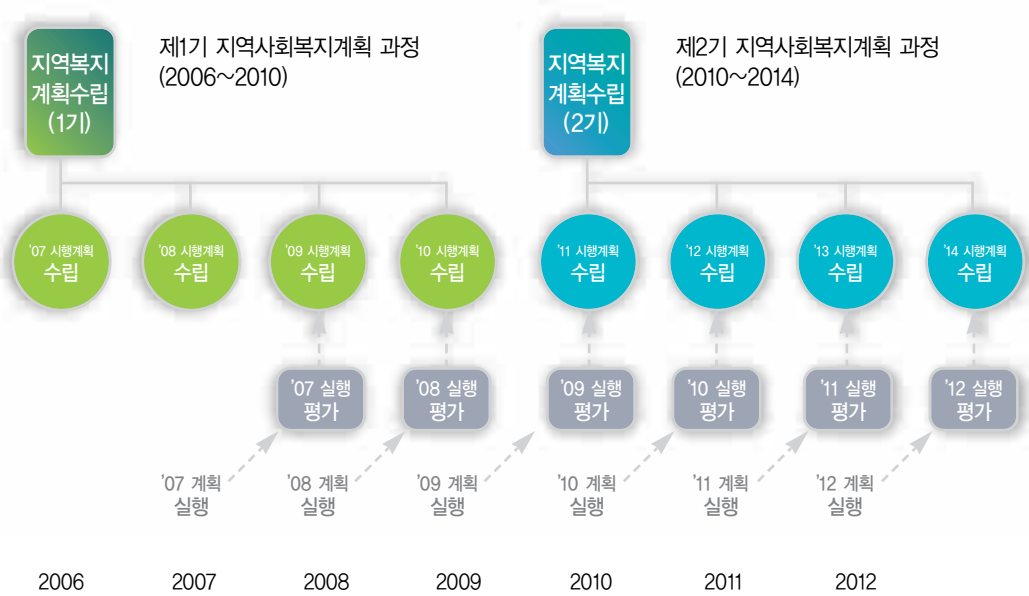
우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충남의 구체적인 복지변화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67개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수준에서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충남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충남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2005년도 예산안 과정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실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비의 성격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하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한 바 있다. 2006년에 제1기(2007-2010)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제2기(2011-2014)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권화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자는 것과, 여기에 지역 주민이 긴밀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둘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이다. 1기와 달라진 점은 성과측정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업의 목적은 성과관리 또는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구체적 대상, 문제 상황, 어디까지 변화, 예: 노인 자살율 2% 감소)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은 각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실행과 사업의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관의 협의과정, 지역주민의 참여성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의 구체성, 지역의 특수성이 포함되었으며, 수립과정에 민관협력(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 구성), 지역주민의 참여(분과별 회의, 자문단회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1기와 2기의 시·도 계획의 공통점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① 시군 계획 종합·조정 →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 → ③ 주민의견 수렴(공고 등) → ④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 ⑤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방향과 과정이다.



[그림1] 지역사회복지계획 구성요소



[그림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

셋째,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 7개 분야의 사업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이다. 다음과 같이 비전, 비전의 의미, 정책방향,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VISION

Dream Together! 변화하는 충남복지

● **비전의미** 충남도정의 비전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며,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투명’, ‘참여와 창의’를 강조하고 있음. 이 비전을 구현하는 7대 전략과제는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선진국 형 맞춤형복지·환경 실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 중에서 복지 분야의 전략은 「선진국 형 맞춤형복지·실현」이 설정되어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2011년-2015년)’가 되었으며, 보육료 일원화(표준단가)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구성, 0~5세 모든 영유아 단계적 보육료 지원, 거점 경로당 증·개보수 및 정보화사업 실시, 16개 시·군 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 종합적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증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국 형 맞춤형복지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Dream Together! 변화하는 충남복지』로 설정하고자 함. 그 이유는 충남도정의 비전과 복지 분야의 전략과 의미적으로 연결됨. 즉, 『Dream Together! 변화하는 충남복지』는 변화하는 충남복지를 함께 꿈꾸고 실행하자는 뜻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대상자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변화시도의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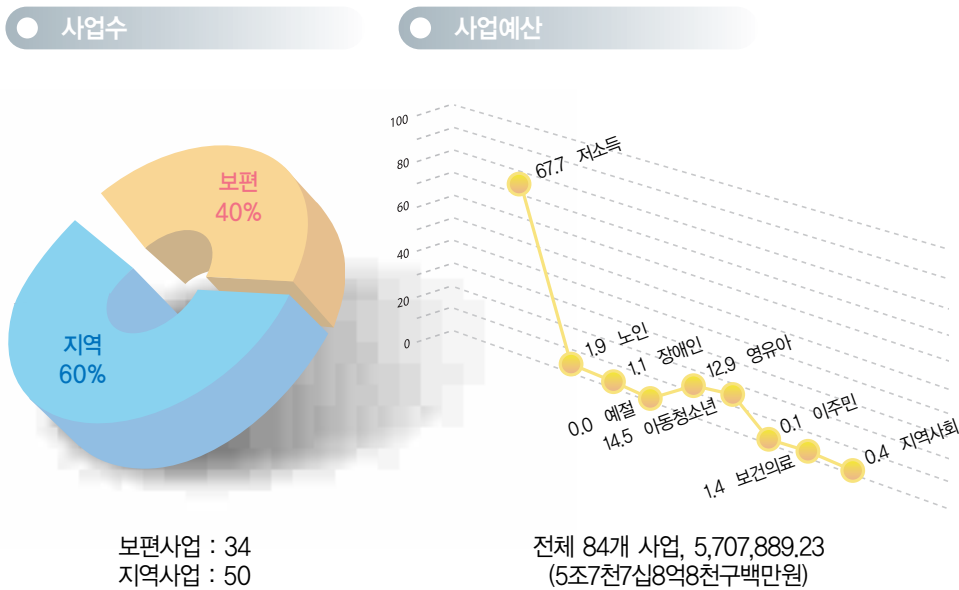
- **정책방향**
-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효율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정비
 - 찾아가는 복지 행정 체계 구축

- **추진전략**
-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돌봄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 저출산 대안 마련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서비스 확대
 -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효율적인 복지전달네트워크 구축
 - 도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생활화

셋째,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이 타시도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이다. 타시·도는 개별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합 및 정리, 개별계획들의 분석 및 점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분야별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도 평가계획 수립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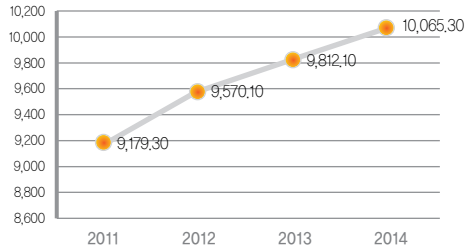
그러나 충남은 16개 시·군의 취합 및 분석 외에 추가로 자원조사(네트워크 조사 포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빈곤아동, 이주민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선 5기 도지사의 공약추진사업 및 전략과제 등을 반영하여, 도지사 임기동안 공약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한다면, 과거의 충남과 전혀 다른 복지충남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제2기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수와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총괄적으로 제2기 (2011년~2014년)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보편사업 34개, 지역사업 50개이며, 전체 84개 사업, 5,707,889,235백만원(5조 7천7십8억8천구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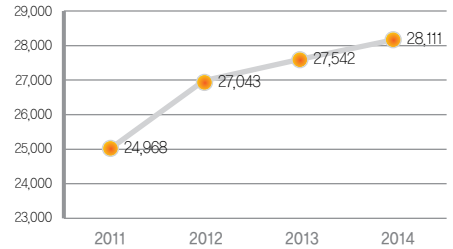


[그림3] 전체 사업 수 및 사업 예산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은 보편사업 6개, 지역사업은 4개이며, 전체 10개 사업에 3,862,680천만원 (3조8천육백이십육억8천만원)이다. 노인복지는 보편사업 2개, 지역사업은 5개이며, 전체 7개 사업에 107,664백만원(천칠십육억6천4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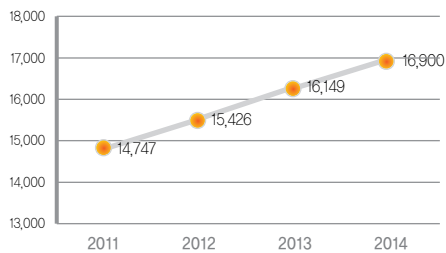


[그림4] 저소득층복지 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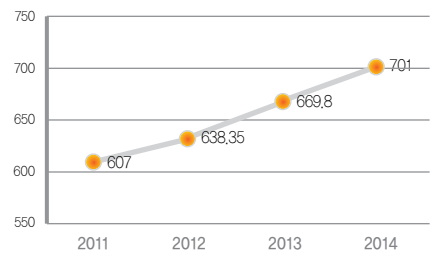


[그림5] 노인복지의 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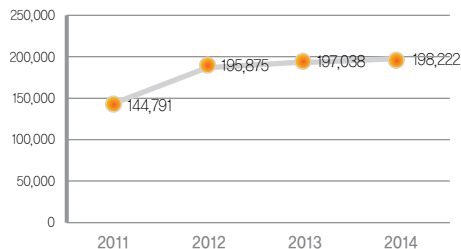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는 보편사업 5개, 지역사업은 4개이며, 전체 9개 사업에 63,230천만원 (육백삼십삼억 삼천만원)이다. 여성(보육)·아동·청소년복지를 살펴보면, 여성복지는 보편사업 4개, 지역사업은 6개, 전체 10개 사업에 2,616.32백만원 (이십육억천육백만원)이다. 영·유아복지는 보편사업 3개, 지역사업 6개, 전체 9개 사업에 735,926백만원(7천삼백오십구억이천육백만원)이다.



[그림6] 장애인복지의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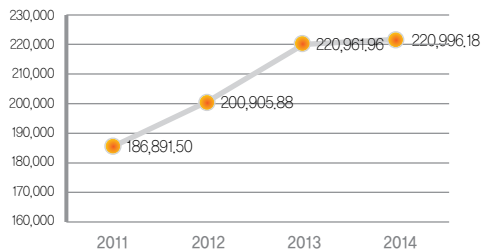
[그림7] 여성복지의 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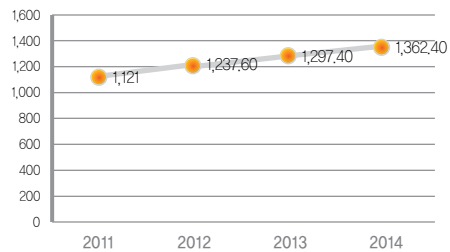
[그림8] 영·유아복지의 사업 예산

아동·청소년복지는 보편사업 6개, 지역사업 3개, 전체 9개 사업에 829,755.515백만원(8천2백구십칠억오천오백만원)이다. 이주민 복지에는 보편사업 3개, 지역사업은 7개, 전체 10개 사업에 5,018.4백만원(오십억천8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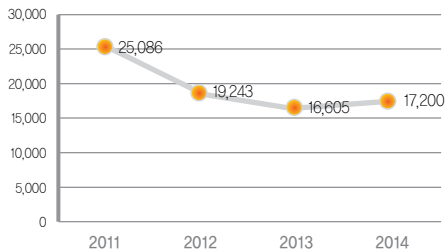
보건·의료분야는 보편사업 6개, 지역사업은 5개, 전체 11개 사업에 78,134백만원(7백팔십일억삼천4백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인프라구축분야는 보편사업 0개, 지역사업은 9개, 전체 9개 사업에 22,865백만원(이백이십팔억육천오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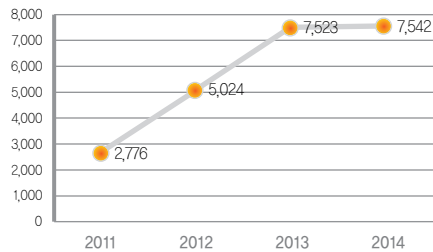
[그림9] 아동·청소년복지의 사업 예산



[그림10] 이주민복지의 사업 예산



[그림11] 보건·의료분야의 사업 예산



[그림12] 지역사회복지인프라구축 분야의 사업 예산

● 송미영 박사 < 본원 연구위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은 2010년 9월 15일에 시작하여 2011년 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최종보고회는 2011년 1월 10일(월), 오후 2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2011~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고자 한다. 즉, 충남도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준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애주기(영아기·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동안 발생하는 육공, 문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대상자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가족(여성), 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 및 충남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한다. 또한 사회복지대상자별 실증적 자료를 활용 혹은 기존자료를 통하여 실태분석을 한다. 더불어 각 사회복지대상자별, 계층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도민)로 생애주기별 혹은 전 생애 동안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다.

기본 추진방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분야별 충남도 가용예산 규모 반영)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생애주기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직업생활, 가족생활, 교육생활 등)과 생애주기 동안의 위기적 사건(가정폭력, 이혼, 실직, 장애, 요보호 성인의 발생 등)에 동시에 접근하며, 충남도의 정책기조도 반영할 것이다.

부문별 사업계획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본적으로 제2기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주기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인 5단계로 구분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범주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가족(여성), 이주민으로 분류한다. 즉, 저소득층의 생애주기, 노인의 생애주기, 장애인의 생애주기, 아동의 생애주기, 청소년의 생애주기, 가족(여성)의 생애주기, 이주민의 생애주기 등을 살펴본다.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보다 삶의 연속선상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고,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준이다.

생애주기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은 사회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제도, 복지서비스(소득 및 생활보장, 건강, 교육, 고용, 사회참여 및 인권) 현황 등, 사회복지제도의 포괄범위 및 정책대상,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하여 충남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충남도민의 보편적 복지실현방안의 제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실현가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05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5개년 계획 수립 연구

● 황창연 박사(본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성운동 등의 영향으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 충남에서는 1998년 민선2기 시작과 함께 「충남여성발전 중·장기 계획(1999~2010)」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0년은 동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에 따른 평가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환경 변화와 민선5기 도정 출범에 따른 충청남도의 향후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의 향후 5년간 여성정책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남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점 실천과제에 대한 연도별 목표 수립, 추진 평가지표 제시를 통해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5개년(2011~ 2015)이고,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내용으로는 충남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등 여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여건을 전망하고, 제 1, 2,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1999~2010) 및 성과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충남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를 통해 향후 여성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으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분석하고 보육정책 5개년 계획, 다문화정책 5개년 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도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문헌분석과 관련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한 충남만들기」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전략 목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 정책자문교수단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세부과제 선정과 구체화 방안,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정책대상자인 지역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추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충남여성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주요 연구결과

-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중앙정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 민선5기 도정의 방향과 충남의 특수성 고려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여성이슈와 현안과제 주목

- 비전 및 목표

VISION

함께 하는 평등사회, 여성이 행복한 충남

| 전략목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인권·
복지 증진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 정책과제

0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04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권보호

07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02 여성의 정치·
사회·문화 활동
증진

05 취약계층 및
소수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

08 여성친화도시
조성

03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위
향상

06 일·가정 양립
지원 환경 구축

■ 핵심영역과 정책과제

충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8대 핵심영역의 136개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과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충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3대 전략 목표	핵심영역	주요 정책과제	비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취업지원기관 기능 활성화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기회 확대 창업지원 확대 비전통적분야에 여성진출 확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역기반과 연계된 산업에 대한 연구 강화	15개 (신규10 기존 5)
	여성의 정치·사회·문화 활동 증진	여성의 조직역량강화 여성의 생산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여성의 교육력 강화 여성교류협력 강화	17개 (신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위향상	여성농어업인 지위와 권리 향상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차세대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여성농어업인 맞춤형복지증진	16개 (신규8 기존8)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원 확대 폭력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예방 및 사회적 인식제고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지원체계의 강화 성매매 예방·홍보 활동 강화 및 성과 제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16개 (신규 8 기존 8)
	취약계층·소수자의 복지 및 사회통합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여성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기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이주여성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25개 (신규10 기존 15)
	일·가정 양립 지원환경 구축	바로바로 보육지원 시설 설치 방과후 보육 및 돌봄기관 네트워크 구축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및 실시 충남형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및 사례 발굴	18개 (신규12 기존 6)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구축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역량 향상 교육 확대 여성전문인 발굴 및 활용시스템 구축 여성공무원의 체계적 육성·관리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별 성평등 교육 실시	23개 (신규11 기존12)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지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결과에 대한 포상	6개 (신규)

정책과제 30개, 세부추진과제 총 136개- 신규 82개/ 기존 및 확대 54개

- 이상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각 영역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투자계획, 평가지표를 제시했으며, 이와같은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통해 「함께하는 평등사회,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의 인권 및 권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의 인권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충남여성결혼이민자 인권현황 및 개선 방안' 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조례분석'을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01

충남여성결혼이민자 인권현황 및 개선 방안

● 조화성 박사(본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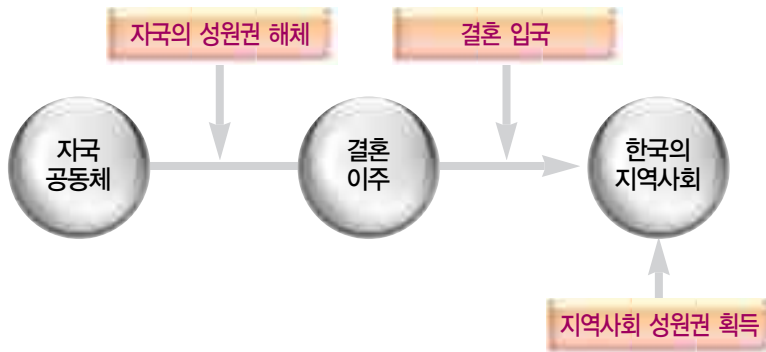


1) 문제제기

최근 다문화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인권 향상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이주민의 취·창업 등 자립역량강화 정책이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형성한다면 인권 정책은 이주민이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이주민에 대한 인권 관련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권리, 복지의 제공 등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권리 제공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인권 연구는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제반의 인권이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활의 공간에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정하지 않거나 사회관계 속에서 무시와 모욕 등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한국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지 않거나 대화 중 반말을 사용하는 것 등은 인권의 제도적 영역에 포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권 연구의 영역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의 문제를 일상생활의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성원권(membership)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성원권은 공적공간에서 특정범주의 사람들이 무시와 모욕 등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여성결혼이민자 성원권의 변화

[그림 1]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성원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주여성의 결혼이주 과정은 한편으로 자국의 성원권이 해체되는 과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지역사회의 성원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는 가족단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이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공적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성원권의 획득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가 부과하는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신, 지역사회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며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충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이들의 균형적 사회적 관계, 차별의 해소라는 두 가지 방향을 통해 살펴본다.

2) 충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성원권 : 사회적 관계와 차별경험¹⁾

(1) 균형적 사회적 관계

균형적 사회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인과 더불어 한국인과 사회적 연결망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가족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등 1차 집단을 벗어난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를 보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 모임과 지역주민 모임 참여형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이 글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09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자료와 2009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분석 자료이다. 아울러 충남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터뷰결과를 적용하였다.

〈표 1〉 충남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연결망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어려운 일 의논대상	전국	39.5	34.3	1.4
	충남	51.4	37.3	2.0
여가나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	전국	28.1	37.5	2.4
	충남	56.8	39.3	3.6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	전국	14.8	52.8	1.3
	충남	27.1	59.5	3.4

(단위 : %)

〈표 2〉 충남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형태

나의 가족모임	배우자 가족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참석 모임이 있는 경우				
49.3	80.3	60.4	22.8	37.7
참석 모임이 없는 경우				
40.7	10.0	31.1	58.7	55.2

(단위 : %)

충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주로 모국인 위주의 연결망의 특징을 지닌다. 어려운 일 의논대상과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관해 과반수 이상이 모국인으로 응답하여 모국인 위주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참여모임은 배우자 가족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위주이며, 학부모 모임이나 지역주민 모임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차별의 경험

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에 관해서는 31.7%로 응답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의 경험을 차별의 공간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차별의 수준과 정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차별대우를 받은 장소에 대한 응답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생활공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는 차별 받은 장소는 특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차별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공간, 이동 상황, 소비생활, 공공기관 방문, 경제생활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차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충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대우 경험 유무

(단위 : %)

구분	차별대우 받은 경험
전국	34.8
충남	31.7

〈표 4〉 충남 여성결혼이민자 차별받은 장소

구분	차별받은 장소				
	거리나 동네	상점, 은행, 음식점 등	공공기관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소	직장, 일터
전국	41.2	37.1	24.9	19.8	61.3
충남	42.5	35.5	23.6	17.2	50.1

한편, 차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차별에는 중요한 특징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제, 정치세력의 악용의 대상화라는 노골적 차별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형상으로는 적극적 수용을 보여준다.²⁾ 문제는 이러한 수용성의 내용이 이주민에 대한 특정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불쌍한 존재로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방인, 남의 나라 사람으로 대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수용에는 차별에 기초한 수용이라는 역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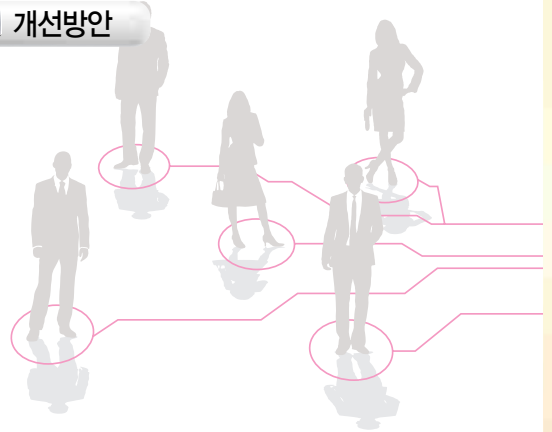
3) 충남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개선 방향 : '다문화가족'이라는 차별의 언어 재검토

지역사회 성원권의 시각에서 보면, 여성결혼 이민자는 지역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지원과 교육의 대상,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주민의 지역 사회 성원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인과 이주민간의 공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이주민들이 다문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균형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과 관련하여 결혼이주민이 많이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호칭이 오히려 사회적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은 적극적 정책대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다른 한국인 가족과 차별화되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이주민과도 차별화시키는 언어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호칭 역시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출신, 외모 등의 기준으로 새롭게 차별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점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상징되는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은 인권과 차별해소의 성원권의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내용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07년 세계 46개국 국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입국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로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 김종철 박사 < 본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정부에서는 남녀평등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성주류화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성주류화'란 고용, 정치, 복지 등 일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양성평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특성이나 욕구 등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 분석도구이자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 자치법규는 헌법 등 상위법과 달리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인 행정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치 법규 제정 당시에는 차별적이라고 인식되지 않던 조항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차별적 조항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자치법규의 성 차별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함.
- ☛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와 연계된 수많은 정책이나 사업이 성 차별이 없게 혹은 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전략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 현재 충남도청에는 조례 284개, 규칙 119개, 훈령 121개, 예규 22개 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법령을 성 인지지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했음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청의 조례, 규칙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제반 정책 및 사업이 보다 더 성 평등한 근거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분석의 기준

- 첫째, 직접 차별 혹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
- 둘째, 각종 위원회 등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제1,2항)
- 셋째, 의도하지 않은 성별수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넷째, 성 평등 및 젠더 관점에 어긋나는 전 근대적 용어의 존재 여부

3. 분석의 결과

가. 직접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조례 및 규칙

직접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해당되는 조례/규칙에는 충청남도 순환 수렵장운영관리 조례 시행 규칙 등이 있음(나머지는 생략)

충청남도 순환 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2항

제4조 (수렵안내원 위촉 등) ① 시장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

- 충청남도 순환 수렵장운영관리 조례시행 규칙 제4조 2항의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는 성별, 나이, 용모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됨

나.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수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관련 조례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수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관련 조례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외에 다수가 해당 됨(나머지는 생략)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성이 거의 없거나 대부분 남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위원이 위촉될 확률이 매우 낮아서 본 조항은 성별에 대한 간접차별이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수혜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3. 간접차별에 해당되는 조례 및 규칙

간접차별에 해당되는 조례 및 규칙에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외에 다수가 있음(나머지는 생략)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9. 22>

제10조의2 (위원장의 직무대행)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9. 22>

-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연령에 따른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인 장유유서를 따르는 것이나 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따른 것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참여가 늦은 여성으로서는 연령을 대표성의 기준을 할 경우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어려운 구조임. 즉, 연령대로 볼때 남성은 오랜 사회경험으로 연장자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활동하고 있어서 연장자로 위원장을 대행케 하는 것은 여성에게 불리함. 따라서 위원장 대행기준을 연장자로 하는 것은 여성에게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음.

4. 전 근대적 용어로서 용어변경이 필요한 조례 규칙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7. **<호적>등본**(조례 제2조 제4호 해당자에 한함)
8. 발령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조례 제2조 제2호 해당자에 한함)

- 충청남도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의 제2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서류에 제 7호를 보면 ‘호적등본’ 제출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호적등본은 부계혈통만을 따르는 호주제의 폐지로 민법 781조가 개정되면서 호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정비되었고, 신분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용되고 있음.
- 상위법의 변경으로 전 근대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충청남도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의 제2조의 7호의 ‘호적등본’의 용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Special Theme 01

충남의 자살현황 및 과제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10년 째, OECD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국 10개 시·도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된 충남.
이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까지의 자살률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자살현황 및 과제 | 42

충남 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과제 | 46



우리나라의 자살현황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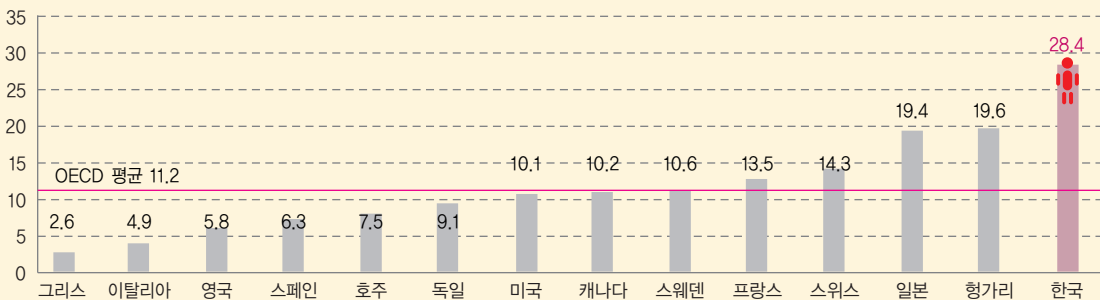


● ○ ● 현재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이며 최근 WHO(세계 보건기구), IASP(국제자살예방협회)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논의가 활발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 중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자살자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자살대국'이라는 수식어를 낳았다. 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치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90년대 초반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98년도에는 점차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10년 째 이어가고 있다.

OECD 표준인구 기준으로 국가별 자살률을 계산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8.4명으로 회원국의 평균치인 11.2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 수치는 자살률에 있어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며 2위인 헝가리의 19.6명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자료 : OECD(2010) *OECD Health Data 2010 :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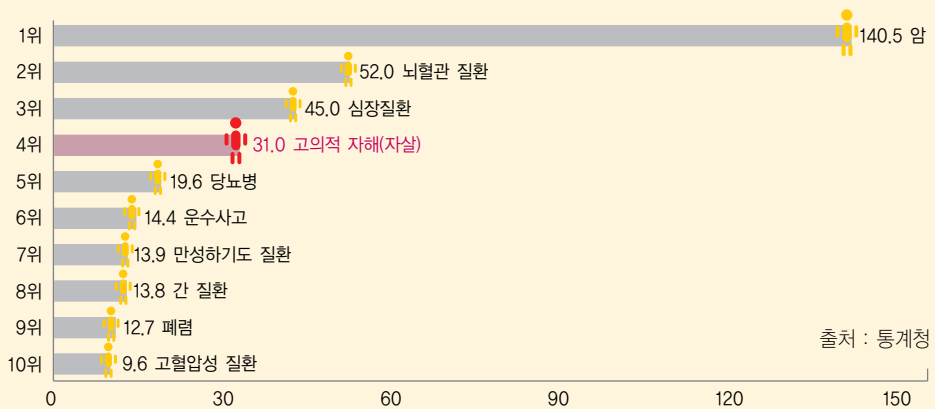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한국 2009년 : OECD 표준인구로 자체 계산한 결과임.

출처 : 통계청(09.09)

사망원인 순위 4위 '자살'

10년 전 사망 원인 통계 중 자살 순위는 7위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 순위가 무려 4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벌써 10년 새 3단계나 오른 수치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암울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자살

2009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5,413명으로 1일 평균 42.2명(34분에 1명꼴)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자살자수는 전년대비 2,555명(19.9%)이 증가한 수치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명당 3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는 40초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으로 통계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살률 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43%나 증가했으며 2008년까지만 해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했던 교통사고를 제치고 자살이 사망원인의 1순위가 되었다.

30대 역시 자살률이 28.4%나 늘었으며 30대의 사망원인 1순위 역시 사고사가 아니라 자살로 나타났다.

여성 자살률 또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최근 들어 노인들의 자살률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약 4배가 높고 지난 10년 사이에는 노인 자살이 세 배나 증가하였다.

사망자 백 명 중 4명꼴로 자살로 인해 숨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명인의 자살이 매스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되면서 자살이 하나의 문화현상처럼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 성별 자살자수 및 자살률 추이, 1999-2009 〉

연도	자살자수			자살률			1일평균 사망자수
	남녀전체	남자	여자	남녀전체	남자	여자	
1989	3,133	2,195	938	7.4	10.3	4.4	8.6
1999	7,056	4,953	2,103	15.0	20.9	9.0	19.3
2008	12,858	8,260	4,598	26.0	33.4	18.7	35.1
2009	15,413	9,936	5,477	31.0	39.9	22.1	42.2
증감	08년 대비	2,555	1,676	879	5.0	6.6	3.4
	99년 대비	8,357	4,983	3,374	16.1	19.0	13.1
증감률	08년 대비	19.9	20.3	19.1	19.3	19.7	18.5
	99년 대비	118.4	100.6	160.4	107.5	91.0	146.8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명, %)

〈 연령별 자살률 추이, 1999-2009 〉

연령	남녀전체				남자				여자				성비
	1999	2008	2009	08년대비 증감률	1999	2008	2009	08년대비 증감률	1999	2008	2009	08년대비 증감률	
계	15.0	26.0	31.0	19.3	20.9	33.4	39.9	19.7	9.0	18.7	22.1	18.5	1.81
10-19세	5.1	4.6	6.5	40.7	5.6	4.9	6.9	39.6	4.4	4.4	6.2	42.0	1.11
20-29세	13.1	22.6	25.4	12.2	16.5	22.2	25.3	14.1	9.6	23.0	25.4	10.3	1.00
30-39세	17.3	24.7	31.4	26.9	24.1	28.3	35.6	25.8	10.3	21.0	27.0	28.4	1.32
40-49세	21.3	28.4	32.8	15.5	32.2	38.1	45.4	19.2	9.8	18.4	19.8	7.7	2.30
50-59세	23.2	32.9	41.1	24.9	36.4	50.5	62.0	22.7	10.3	15.2	20.0	31.9	3.09
60-69세	28.9	47.2	51.8	9.7	47.4	74.1	80.8	8.9	14.3	23.3	25.8	10.6	3.13
70-79세	38.8	72.0	79.0	9.7	66.5	115.0	123.9	7.7	22.8	44.0	49.0	11.5	2.53
80세이상	47.3	112.9	127.7	13.1	81.9	194.4	213.8	10.0	34.1	79.7	92.7	16.3	2.31

(단위 : 인구 10만명당, %)

자살, 개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빛으로 인한 자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군대 내 구타로 인한 자살, 성적 하락에 따른 자살, 실연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을 겪던 인기 연예인의 자살까지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살은 더 이상 소수에 의해 자행되는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니며 특히 인기 연예인의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켜 자살률 급증에 큰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근 20년 간 자살현황을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부유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는 자살이 단순히 경제적인 처지를 비관하여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자살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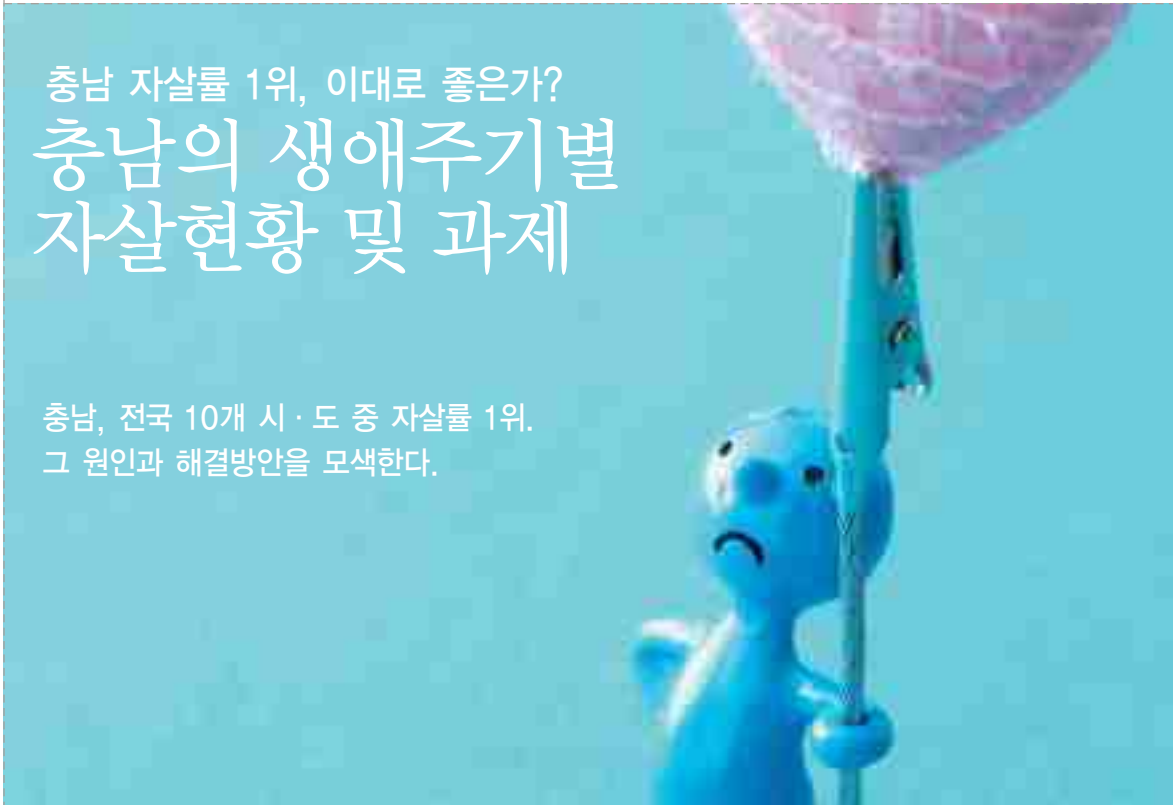
자살의 원인에는 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개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형화 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자살률 추이를 보았을 때 사회적 제도나 국민들의 개개인의 자아의식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려면 생애 주기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예방 기관이나 정신 치료 시설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위기개입과 사후 관리 사업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실천해나가야 하는 때다. 지속적인 자살 예방의 노력과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야 비로소 10년 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자살대국'이라는 수식어에게 안녕을 고할 수 있지 않을까.





충남 자살률 1위, 이대로 좋은가? 충남의 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과제

충남, 전국 10개 시·도 중 자살률 1위.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 ● 2010년 9월 9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09년 시·도 자살률 중 38.8명으로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 자살률이 심각한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으나 여전히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 및 대책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질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 29.1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가 바뀔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전국 시·도 자살률 순위, 2009 〉

	전국	충남	강원	충북	제주	대전	전북	인천	부산	경북	경남	광주	경기	대구	울산	서울
자살률	29.1	38.8	38.1	37.5	31.7	31.1	31.0	30.7	29.3	29.2	29.2	28.8	28.8	28.0	25.9	24.6
순위		1	2	3	4	5	6	7	8	9	9	10	10	11	12	13

* 시도·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9통계청 자료 재구성

〈 청소년 자살자수 및 자살사망률(2005-2007) 〉

구분	년도	청소년인구집단(연령별)			
		10-14세 자살자수 (사망률)	15-19세 자살자수 (사망률)	20-24세 자살자수 (사망률)	25-29세 자살자수 (사망률)
전국	2005	40(1.1)	239(7.6)	608(16.0)	753(19.3)
	2006	34(1.0)	198(6.2)	429(11.9)	613(15.5)
	2007	52(1.5)	257(7.9)	620(18.3)	937(23.3)
충남	2005	0(0.7)	11(8.9)	25(16.6)	34(24.1)
	2006	1(0.7)	11(9.0)	18(12.7)	26(18.0)
	2007	1(0.7)	12(9.8)	25(18.8)	39(26.5)

※ 출처 : 통계청(2009)



청소년 자살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2007년의 통계자료에서 국내 청소년(15-19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같은 해 3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세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47.7명, 충남의 경우 54.9명으로 나타나 충남의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평균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가 바뀐 2008년에는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가 13.5명으로 9.2명인 '운수사고', 3.7명인 '악성신생물(암)'을 훨씬 앞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 연령별 청소년 사망원인(2008) 〉

	1위	2위	3위	4위	5위
1~24세	고의적자해(자살)(6.4)	운수사고(5.5)	악성신생물(암)(3.1)	익사사고(1.1)	선천기형(0.7)
1~14세	악성신생물(암)(2.6)	운수사고(2.5)	선천기형(1.0)	익사사고(0.9)	타살(0.7)
15~24세	고의적자해(자살)(13.5)	운수사고(9.2)	악성신생물(암)(3.7)	익사사고(1.3)	심장질환(0.9)

※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8

자살충동 이유는 '성적, 진학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15~24세 청소년의 8.9%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20~24세의 경우 '직장문제(22.6%)' 와 '외로움·고독(21.8%)' 이었고, 15~19세는 '성적·진학문제(51.0%)' 가 자살충동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성적, 진학에 따른 청소년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 체제에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여 외부 혹은 내부에서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 할 위험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된 고민, 자살 충동의 원인을 유형화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중 성적, 진학문제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주위에서 부여하는 기대감과 자신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가지는 절망감, 좌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점차 가열화 되고 있는 성적 경쟁 구도는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충동여부 및 이유(2008) 〉

	계	있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이성 문제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문제	친구불화 따돌림	기 타
15~24세	100.0	8.9	100.0	12.3	4.4	3.9	9.4	16.6	10.3	35.1	5.2	2.8
15~19세	100.0	10.4	100.0	8.8	2.0	3.5	1.7	13.6	10.1	51.0	6.6	2.9
20~24세	100.0	7.2	100.0	18.5	8.4	4.5	22.6	21.8	10.6	7.8	3.0	2.8

※ (단위 :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높은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도

사회조사 통계에서 15~24세 청소년의 56.5%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9세 연령층은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¹⁾ (2008) 〉

	가정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생활
15~24세	41.4	64.4	56.5
15~19세	44.7	68.8	60.0
20~24세	37.4	54.1	52.4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08

※ 주 : 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매우 많이 느낌' 과 '느끼는 편임')의 비율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스트레스와, 충동적, 보복감정의 특징이 강하다는 데에 있으며 사전계획 없이 감정적이며, 주로 자살 의도를 표출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와 가정의 두 체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갈등, 부모의 이혼 등 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학교 및 또래 간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스트레스나 친구 죽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신문, TV, 소셜 등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대중매체의 자살관과 자살소식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 청소년층 자살예방대책(안) 〉

	일반청소년	위기 및 자살위험청소년	자살시도 청소년	사후 과정
중점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정상화 - 학교폭력 감소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보장 - 우울증 위험요인 감소 - 아동청소년, 부모정신 건강증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빈층, 문제아동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에 대한 정신 보건교육 - 아동청소년기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홍보 - 위험군 선별 검사 - 인터넷 상담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시도청소년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 강화
세부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부모정신 건강증진교육에 자살 예방교육 포함 - 우울증 위험요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 연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센터와 국립정신병원 등 보건교육 실시 - 자살시도자 상담치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성인층 자살

청소년, 노인층에 비해 자살연구 미흡

경제활동기 인구인 성인층에 대한 자살 연구는 청소년과 노인층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이들의 자살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정책도 미비한 편에 속한다. 성인층의 자살은 청소년 및 노인층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각 연령별로 가지는 역할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인층 자살률, 매년 증가

통계청 연령별 사망률 순위를 살펴보면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으며, 40대에서는 악성 신생물에 이어 2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30~50대 자살률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국 자살률에 비해 높은 편으로 5세 연령 구간별로 봤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청장년 자살자수 및 자살사망률(2005-2007년) 〉

구분	년도	성인인구집단(연령별)					
		30-34세 자살자수 (사망률)	35-39세 자살자수 (사망률)	40-44세 자살자수 (사망률)	45-49세 자살자수 (사망률)	50-54세 자살자수 (사망률)	55-59세 자살자수 (사망률)
전국	2005	40(1.1)	239(7.6)	608(16.0)	753(19.3)	953(33.7)	800(35.6)
	2006	34(1.0)	198(6.2)	429(11.9)	613(15.5)	988(32.0)	817(35.1)
	2007	52(1.5)	257(7.9)	620(18.3)	937(23.3)	984(29.8)	789(32.8)
충남	2005	0(0.7)	11(8.9)	25(16.6)	34(24.1)	52(47.5)	59(62.7)
	2006	1(0.7)	11(9.0)	18(12.7)	26(18.0)	60(50.8)	38(38.4)
	2007	1(0.7)	12(9.8)	25(18.8)	39(26.5)	45(35.6)	56(54.9)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 (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주요 원인은 역할부담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

주로 중 고령층은 가정,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노년기 부모와의 사별, 퇴직 등과 같은 손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 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갖는 근로자가 많고 여성의 경우 출산과 갱년기에 의해 정신건강을 잃기 쉽다.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가꾸기와 함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장기 간노동, 실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병이 많은 점에서 우울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시된다.

성인기는 아동기나 가족경험이 성인기 자살행동의 주요 역할로 나타나고 있으며, 즉 정신건강요인, 힘든 삶의 환경,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더 영향을 주게 되면서 특히 우울증, 알코올, 약물남용 등의 관련성이 크게 나타난다.

성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우울은 가장 위험한 요소이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도움을 더 구하는 편에 속한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우울 증상에 대한 공적인 교육이나 우울한 남성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 장년층 자살관련 위험 요인 〉

개인적	주요 위험요인
생물, 유전적	- 가족의 자살경험 - 정신장애(우울, 약물남용 등)
개인적	- 과거자살시도 경험 - 음주와 흡연 - 실직
가족적	- 가족갈등 - 이혼 - 문제가정 - 낮은 경제수준 등
사회환경적	-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성인층 자살예방대책

현재 중·장년층에 대한 자살동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노인계층에 비해 연구가 미흡하다. 다만, 이 세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의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또는 갱년기에 의한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할 시기라는 것에서 자살의 동기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퇴직연령까지의 자살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은 출산이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예방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함을 인지하여 직장 내 정신건강사업 시행,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우울증, 실직, 저소득층,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환자 대상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성인층 자살예방대책(안) >

단계	건강단계	자살시도단계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관련 홍보 -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유해환경정비 - 자살수단접근차단 -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
세부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사랑 문화프로그램 확산 - 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직장인 정신건강프로그램 개발 - 정신건강증진체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3자 통화체계구축 - 자살시도자 체계적 관리 - 24시간 상담 가능한 위기 대응 전담팀 신설

※ 출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 (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노년층 자살

노년, 상실의 시기

노년기는 직업역할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중단과 함께 자아존중감, 명예의 상실 등으로 어려움의 시기이다. 또한 배우자의 죽음, 노화와 건강 약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능력상실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고립감과 무력감,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의 자살배경으로서 만성질환에 따른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 신체기능의 저하에 뒤따르는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상실감, 근친속의 상실체험, 개호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병이 많다. 고령자는 신체적인 기능저하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는 기회가 많으므로 주치의나 단골의사 등의 우울증 질환 진단 기술의 향상, 건강검사 등을 활용한 우울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함께 고령자를 위한 삶의 질 증진 방안이 중요하다.

연령 증가할수록 자살률 증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자수와 자살률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전국 노인인구비율이 9.8%인데 비해 충남지역은 14.5%를 나타냈으며, 자살률은 전국에 비해 연령구간별로 약간씩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노년층 자살자수 및 자살사망률(2005-2007년) 〉

구분	년도	노인인구집단(연령별)				
		60-64세 자살자수 (사망률)	65-69세 자살자수 (사망률)	70-74세 자살자수 (사망률)	75-79세 자살자수 (사망률)	80세 이상 자살자수 (사망률)
전국	2005	952(47.6)	1048(62.5)	866(74.5)	646(88.8)	834(126.7)
	2006	809(41.0)	925(53.5)	850(68.0)	642(83.4)	780(112.7)
	2007	810(41.4)	997(54.5)	941(70.9)	743(90.9)	860(117.3)
충남	2005	56(58.9)	76(79.0)	76(100.7)	49(107.9)	67(162.2)
	2006	54(59.0)	61(64.4)	60(74.2)	47(98.4)	69(159.6)
	2007	44(50.3)	82(84.5)	73(86.3)	66(128.6)	84(184.7)

※ 출처 : 통계청(2009).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 (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남성 자살률, 여성보다 1.5배 높다

최근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 조사>에 의하면 노인 자살시도자 3명 중 1명은 본인의 건강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시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살성공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31.8%로 그 외 연령층 자살 성공률보다 약 4배가 높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6)

충남지역의 2006년도 노인자살자수는 남성이 61.2%로 여성보다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전국의 성별 자살과 비슷한 상태이다.

< 전국 및 충남의 성별 노인자살자수 비율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충남	145명(61.2)	92명(38.8)	237(100.0)
전국	1954명(61.0)	1247명(39.0)	3201(100.0)

※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2008)

전체 노인 중 65-69세 자살률 25.7%로 최고

충남지역의 연령대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65-69세 연령대의 자살자수가 전체 노인의 2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0-74세 미만이 25.3%, 75-79세 연령대가 19.8%를 차지하였다. 실제자살자 수로는 노인연령대 중에서 연소노인의 비중이 높지만 10만 명당 자살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편이다.

< 전국 및 충남의 연령별 자살자수 비율 >

	사망연령 집단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충남	61(25.7)	60(25.3)	47(19.8)	40(16.9)	21(8.9)	8(3.4)	237(100.0)
전국	926(28.9)	853(26.6)	642(20.1)	487(15.2)	210(6.6)	83(2.6)	3201(100.0)

※ 단위 : 명, %

※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2008)

충남 노년층, 사망수단 1위는 ‘살충제’

충남 지역의 사망수단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57.0%가 살충제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 그다음으로 목매이 33.8%로 2위를 차지했는데 전국 지표에서는 전체 자살자의 52.8%가 목매인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이 통계 결과로 충남 지역 중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살 수단이 농약의 사용과 연관됨을 추정할 수 있다.

〈 전국 및 충남 자살수단별 자살자수 비율 〉

	사망수단							전체
	항정신성약물	중독	화상	살충제	기타화학물질	목매	휘발성물질 등	
충남	-	1(0.4)	1(0.4)	135(57.0)	20(8.4)	80(33.8)	-	237(100.0)
전국	6(0.2)	7(0.2)	12(0.4)	1273(39.8)	226(7.1)	1675(52.3)	2(0.1)	3201(100.0)

※ 단위 : 명, %

※ 출처 : 한국자살예방협회(2008)

노년층, 자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노년기 우울의 일반적인 특성은 노화과정과 관련된 생리적 요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유전 혹은 질병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요인,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살생각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변인에 직접적인 변인으로서는 우울이 가장 컸으며, 사회통합, 교환자원변인은 자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 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관계망이 축소된 노인의 경우 자살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 상태로 볼 때, 사별노인의 자살가능성이 유배우 노인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장애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우울증의 증가 등으로 노년기의 자살이 많다는 보고가 지배적이며 경제적 상태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빈곤할수록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가족관련 특성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와 사회적 지원체제가 결여되었을 때 노인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 친지, 이웃과의 통합 등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스트레스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노인들은 가족관계와 만성질환, 경제문제와 같은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 자살 위험 요인이 된다.

〈 노인 자살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구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생물, 유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자살경험 - 정신장애(우울, 정신 분열증, 약물남용 등) - 우울증 - 절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만족이나 종교적 믿음 - 사회적 기술 - 신체적, 정신적 건강 - 미래에 대한 희망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여성 - 연령 ↑ > 연령 ↓ - 거주형태(농촌>도시, 고립된 노인) - 결혼상태(사별>유배우) - 건강상태(건강 ↓ > 건강 ↑) - 경제적 상태(경제상태 빈곤 ↓ > 경제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제력 - 약물치료에 대한 순응적 태도 - 충동 통제력 - 강한 자기가치감 - 자기 통제감
가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자녀, 손자녀)에 대한 걱정과 접촉책임과 의무 - 사회적 지지의 확실함
사회환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의 부족 - 친구의 죽음 - 대중매체, TV, 소셜 등 - 지역사회관계망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의 연대감 - 사회적활동에 다양한 참여기회 - 안전한 시설에 입주할 경우 - 지속적인 취미생활 - 소득 - 사회복지제도과 안전망 - 정신질환등 조기치료 환경

※ 출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 (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노년층 자살예방대책(안)

노인의 자살은 하나의 사건이기보다는 총체적인 삶의 상황을 반영하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 자살원인으로는 만성질환, 상실체험, 가족 및 친구지지망의 감소를 말할 수 있고, 노인 자살시도자 3명 중 1명은 본인의 건강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만성 질환 및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 자살자의 54.%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며 40.5%는 사별한 노인이었으며 노인 중 남성이 61.2%로 여성보다 1.5배정도 많은 수치를 보였다.

자살방법수단으로는 살충제에 의한 자살이 57.0%로 목매이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2005)에서는 파라쿼트 농약으로 인한 중독사고와 음독자살의 증가에 따른 감소를 위해 파라쿼트 음독사고 방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다.

지역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실무기관의 연계가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으로는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 119등이 있고 민간영역으로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민간 Hot-line 등의 상담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살예방센터 등이 있다. 또한 비공식 영역에서는 통장, 반장, 부녀회 등 주민조직, 경로당과 마을회관,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 노년층 자살예방 대책(안) 〉

단계	건강단계	자살시도단계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관련 홍보 -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 확대 - 자살실태분석 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수단접근차단 - 24시간 위기대응체계
세부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종합계획 수립 - 건강프로그램 개발 - 노인우울증 관련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방조행위 단속강화법제도 개선 - 고독성 농약 관리 강화 추진 -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출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현주, 배지연 (2009) 충남생애주기별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대책수립

자살예방대책을 위해서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자살예방정책의 대상은 잠재적 자살위기를 내재하고 있는 모든 생애주기별 연령을 포함하되,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력 아래 있는 유가족 및 사람들, 지역사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예방대책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예방의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설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천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Special Theme 02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대한민국 곳곳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저출산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그 이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사해보았다.

여성정치시대 | 새 세상 연구소 김애화 연구원 | 60

출산파업시대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본부장 | 63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 66





여성의 정치 참여 증가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다.

지금은 여성정치시대

‘지방의회 여성 의원 700인’ 시대를 말한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여성의 제도권으로의 진출이 총 당선자 중 18.7%에 달했다. 이것은 역대 선거 중 최고의 기록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당선률 4.6%와 비교해보면 놀랄만한 급성장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여성정치시대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김애화 (새 세상 연구소 여성부 연구원)



약진한 여성후보들



● ○ ● 수적으로 볼 때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6.2 지방선거는 약진이 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낙선했으나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의 석패는 여성의 광역단체 장 탄생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놓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선전은 기초단체 장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여성 26명 중 6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당선자 4명에서 2명이 더 늘 어난 수치다. 또한 최초의 여성 교육감(부산)이 탄생하고, 교육의원에는 여성 1명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분야는 단연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이다. 지난 2006년 선거와 비교하면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는 무려 250%나 증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은 총 625 명으로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2888명 중 21.6%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경우는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선거(11.5%)에 비해 3.3%(2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구 선출 광역의원은 55명(8.1%)이 당선됐고,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여성은 2006년보다 1 명 증가한 58명(71.6%)이 당선됐을 뿐이다.

〈표1〉 2006년/2010년 지방선거 비교

	입후보자		당선자					
	여성입후보자자수	여성/전체	여성당선자수	여성/전체	광역의원(여성/전체비율)		기초의원(여성/전체비율)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2006	1,384명	11.5%	529명	13.5%	4.9%(32명)	(57명)	4.4%(110명)	87.2%(327명)
2010	1,676명	16.7%	746명	18.7%	8.1%(55명)	71.6%(58명)	10.9%(274명)	93.4%(331명)

(기초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포함되지 않음) (여성신문, 1085호).

〈표2〉 지역별 · 여성출마자 비율 (교육감/교육의원 포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서울	22.6%	인천	18.3%
경기	20.3%	강원	12.9%
충북	14.2%	충남	14.0%
전북	11.4%	전남	11.3%
경북	12.4%	경남	14.8%
대전	20.1%	대구	17.6%
울산	20.4%	부산	19.4%
광주	22.0%	제주	15.8%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
지금은 여성정치시대

세계의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스웨덴(41%),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30~40% 수준이고, 프랑스는 47%에 달한다(황아란 2006, 55).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여성위원의 비율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12%, 기초 15%로 처음으로 10%대를 상회했다는 것과(박현희, 2008) 2010년 선거에서의 18.7%는 그 진출이 약진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전히 과소 대표성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비약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의무공천이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의무공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성계의 평가이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계 진출에 효과를 발휘한 것은 비례 홀수 번 공천제도였다.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해온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홀수 번 여성공천의무화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강한 여풍으로 생활과 정치를 어우리는 판을 만들어가자.



● ○ ● 앞으로 여성 후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도 적극적인 참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 정책 협약을 맺은 것들이 실제로 정착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방공약은 생활과 밀착된 공약이 많고 이는 대부분 여성들의 의제가 생활밀착형 의제이기 때문에 지방정치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속에서 우리는 여성 정치를 제도정치에의 참여로 정치의 개념을 좁게 보는 틀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제들을 비정치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생활정치도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아닌 생활정치를 공공영역으로 파급시키는 생활정치가 필요하다. 진정한 풀뿌리 정치와 사회가 되는 주역이 여성임을 다시 각인해야 할 시간이다. 바로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와 일상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여성회 등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여성에게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열려질 여성 정치시대의 진정한 서막을 알린 것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출산파업

저출산 시대를 말하다.

오국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 ○ ●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저출산 해법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세계 최하위까지 도달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출산국에 속했었는데, 급속한 하락률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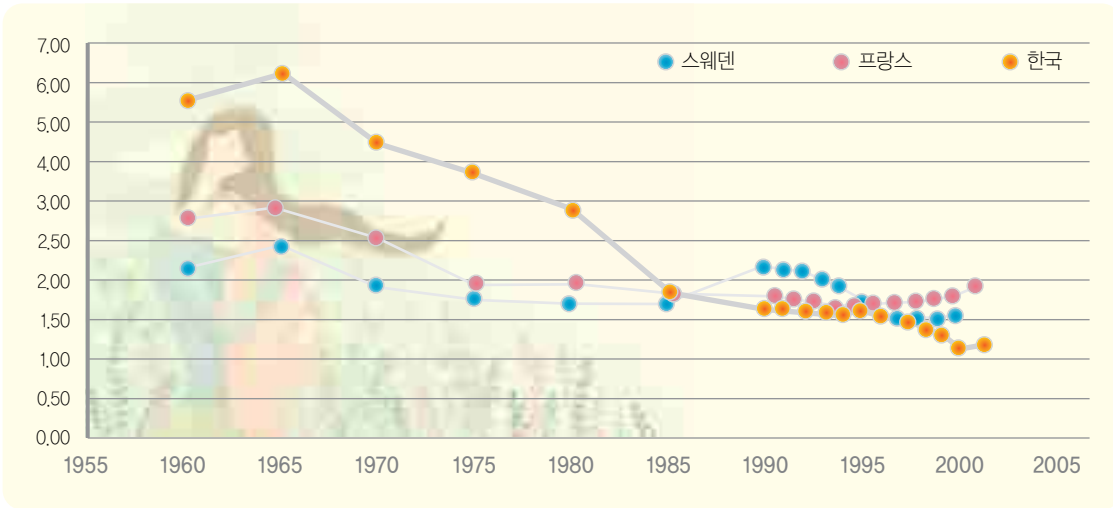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1인당 평생 1.19명 출산)은 부부 2명이 평생 1명 정도를 출산한다. 하지만 인구대체수준(현재의 인구를 유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1 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불임여성이나 혹은 독신가구의 증대를 감안했을 때 2명이 아닌 2.1명 정도가 되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산율이 낮은 유럽이나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1.19명에 불과하고 경제 불황과 만혼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변화하는 여성,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저출산 시대를 말한다.



유럽에서도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편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프랑스는 1965~1975년 사이에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으나 그 이후부터는 안정돼 1.5명 이상을 유지해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65년 이래로 줄곧 브레이크 없는 출산율 하락세를 이어왔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은 자녀 수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의 비교 지표로 이용된다. ©프레시안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56.7세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세대 뿐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에게도 당연한 문제임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청년들이 줄어들고 국가의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노인층을 부양할 책임이 그만큼 증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성장 동력 자체가 손실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극단적인 예언이지만 영국의 옥스퍼드인구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출산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사회문제 중 하나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 국가존립의 문제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저출산 속의 여성인권



● ○ ●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은 출산과 관련된 수당지급이나 물질적 제공 중심의 접근으로 출산수준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 여성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들은 과거 세대 여성과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 결혼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수동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떠나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가 감소하였지만 자녀 키우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점점 자녀의 교육열은 높아져 가고,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들이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여전히 여성에게 차별적인 직장환경의 개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폭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출처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2005) 및 OECD 팩트북(Factbook, 2005).

성 역할의식의 고정관념 탈피 필요.



● ○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 같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들임을 볼 때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양성 평등에 입각한 기본 제도와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가 출산 기피로 나타났다고 보고 여성의 의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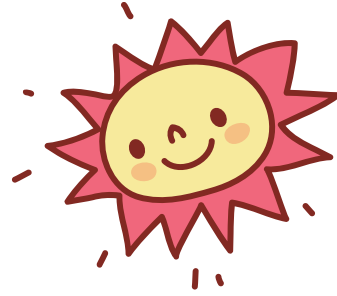
여성에게 의식전환을 요구하기 이전에 양육의 어려움을 남성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정책들과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반의 확립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의식 변화와 같은 근본적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아직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한국 사회가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가부장적 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게다가 여성들도 무의식적으로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들은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것은 다시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갈수록 낮은 출산율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모두의 성역할 의식이 변화되어 깊숙이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새 생명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자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본부



지난 3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의 대전 본부가 힘찬 발걸음으로 첫 도약을 시작했다. 출범식 이후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루, 하루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발자취를 잠시 들여다보았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국내 유일의 시민운동단체

● ○ ●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각계각층의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중앙본부 임원진과 19개 지역본부 조직을 갖춘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이다.

현재 각 지역 본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신·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한편,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본부, 3월 그 첫걸음을 떼다.

● ○ ● 지난 3월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본부의 출범식이 열렸다. 오국희 본부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나라를 구하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앞으로의 저출산율 극복 행보에 대한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출범식 이후 약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대전 본부는 각자 역할 아래 소임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3월 첫 걸음을 뚝 한 후의 대전 본부의 행보는 오 본부장이 출범식 날 밝혔던 포부가 부끄럽지 않게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아빠가 되는 것을 즐겨라

● ○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의 주된 사업내용은 파더링(Fathering)이다. 여기서 파더링이란 '아빠가 된다는 것', '아빠의 역할'을 의미한다. 즉,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즐기면서 육아에 참여하자는 뜻이다.

한국사회의 아빠는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감 때문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인 성공을 목표로 살아오고 있다.

이제는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를 통해 아빠에게 육아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를 힘든 '의무'가 아닌 아빠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받아들일 때, 아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파더링사업은 자녀는 물론, 아빠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본부에서는 2010년 구체적 사업으로, 지난 10월 22일 '달인아빠를 찾아라'는 주제로 아빠 육아 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아빠요리교실'을 진행하는 등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올바른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아빠요리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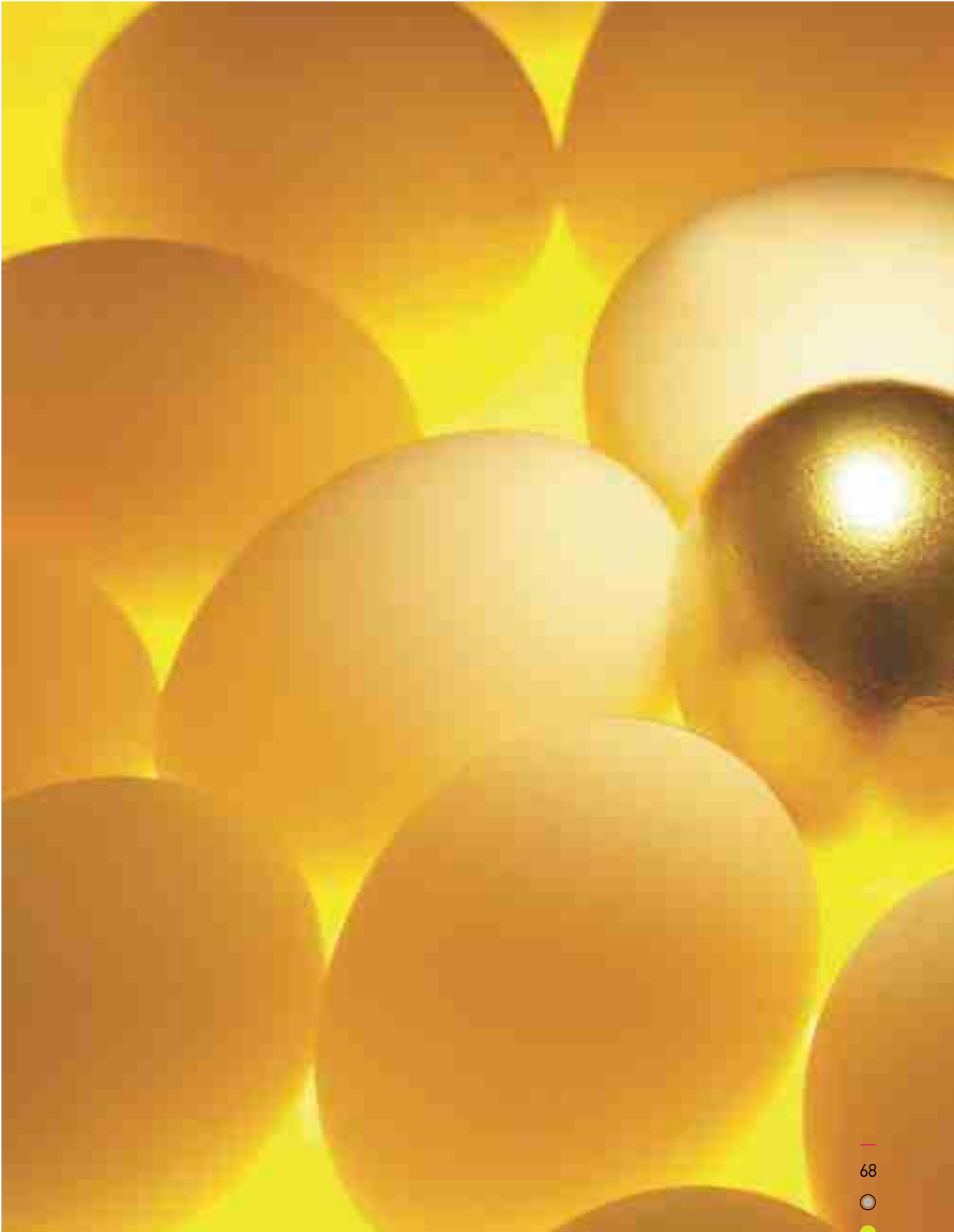
달인아빠를 찾아라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 ○ ● 오국희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를 우리 같은 시민단체의 노력과 활동을 더해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 앞으로도 싱그러운 새 생명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 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와 같은 시민 단체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차고 밝은 내일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자녀 낳기 운동연합의 19개 지역 본부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Reportage

충남, 현장 르포

Issue&Issue 여성! 정치를 말하다 | 70
여성관련 기관 탐방 | 74
백제의 문화, 충청 속으로 | 84





Issue&Issue

여성! 정치를 말하다.

충청남도 여성의원 탐방

6.2 지방선거에서 아산시 다선거구(도고, 신창, 온양4동) 기초의원으로서 선출된 지 어언 6개월, 천천히, 그러나 힘 있는 발걸음으로 '정치' 행보를 내딛고 있는 윤금이 의원. 그녀의 진솔한 정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정치를 말해본다.



윤금이 의원(아산시 기초의원)



- 보스꼬 어린이집원장
- 어린이집 연합회 상임 부회장
- 민주당 운영위원
-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아동 청소년 위원
- 제6대 아산시의회 의원



정치와 삶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다.

-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5 년 전이었습니다.
- 현재 김정숙 스카우트 총재님의 특강을 듣게 된 것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분이 이런 말을 하셨지요.
-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도 국회의원이 되어 제도하나 고치는 것이 몇 날 며칠 데모하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정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 그 말은 정치를 똥으로, 일상생활과는 멀게만 생각했던 나에게 머리를 한방 맞은 것 같은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라는 놈과 연결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삶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

- 이 후에 나는 정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도 하게 되었고 정당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시한 ‘제 1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생-생 2010’에 참석해서 의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 그 때의 강의 중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계신 진덕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저는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 진덕규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가?’ 그리고 곧이어 이 대답에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은 그렇지 않다. 는 대답을 한다고 하더군요.
- 충격적이었으나 나 역시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왜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가?
- 그 물음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 사회구조를 지녔고 그렇기에 불만은 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언덕에 손 벽 치는 아부로 출세하고, 학벌이 없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으며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였기에 우리는, 그리고 나조차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대답에 ‘노’ 라는 대답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는 사회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유하지만 강한 여성의 정치

- 여성이 가진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여성은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 모성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 성별 가치관이 그러기에 조그맣게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며 어떠한 부정부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무서워서 못합니다.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용기를 낼 수 있지요.
- 둘째로 여성은 천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자의 편을 들고 약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 셋째로 여성은 가정을 중시여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 힘으로 여성은 큰일보다 작은 일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작은 일은 크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알뜰히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시의 살림도 국가의 살림도 알뜰히 꼼꼼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무모한 사업을 벌리는 대신 노인을 공경하는 일과 아이를 교육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의’ 로서의 정치

— 멋진 정치철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 처럼 노력한 만큼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그러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어떤 시인이 쓴 시 구절처럼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이정표가 될 수 있게 만들어놓는 이것이 진정한 정치인이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생명을 가장 먼저 존중하며 그 생명의 가치가 대한민국 안에서 건존하게 지켜지기를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어느 정당이든 아침에 잠에서 깨고 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 생각이 달라도 함께 고민하고 거기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이루도록 노력 하는 일이야말로 이시대의 정치인이 해나가야 할 몫이라 여깁니다.

— 생각이 달라도 함께 고민하고 거기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치인이 해나가야 할 몫이라 여깁니다.

— 또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폭포를 이루듯 세상을 바꾸는 것도 결국 한 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여 함께 이루어 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아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고서의 말을 전하며 마칠까 합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뜰 안을 쓰고 지나가고 흠먼지 일지 않음이요 꽃은 떨어져도 한가함을 잃지 않듯 여유로운 마음으로 멀리 보고 살피는 정치인이 되도록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 2011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역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흰 눈 이 펄펄 오는 이천십년 마지막 달에
아산시 시의원 윤금이



여성관련 기관탐방

충남여성인권 현장을 가다

여성쉼터 <천안소망의 집>, <모이세 이주 여성의 집>, 성매매 상담소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충남 성 상담소>, 여성의 인권 신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65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충남의 여성인권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갈 곳 잃은 이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샘터 천안소망의집



천안소망의 집은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돕고 상담하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여성 보호시설로 2002년 8월 27일,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설의 정원은 22명으로 규모는 약 70명에 달하며, 이용자수는 아동을 포함한 538명이 시설에서 수용 중으로, 갈 곳 잃고 상처 입은 이들의 따스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 소망의 집의 설립은 하나님의 뜻.

천안소망의집 설립자 이순정 목사는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친을 각별히 좋아하였던 (이정길 목사님 : 부친 해린교회 은퇴목사 : 2005년 작고) 설립자는 나이가 60세가 지나면서 쫓기 듯이 천안소망의 집을 설립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여성복지에 관심을 가졌고 부친이 계신 경기도 지역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설립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은 설립자는 소망의집을 천안에서 시작하기 까지 우여 곡절과 시련 속에 9살을 먹기 까지 소망의 집을 거쳐 간 어여쁜 엄마와 아이들이 5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때? '그들이 행복을 되찾은 때.'

소망의 집 출범 이후에도 경제력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지내온 지 어언 4년 후인 2005년 4월, 드디어 소망의 집은 여성부 인가를 받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운영과 생계가 해결되었고, 입소자의 자활을 돕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심신 회복 캠프 까지 년 2~3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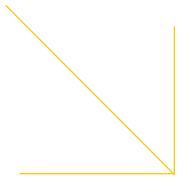
이러한 생활 안에서 내담자는 심신의 치료와 마음의 평안, 새로운 소망가운데 씩씩하게 자립하여 동반 아동들의 가정이 되어 살아가는 딸 같은 퇴소자를 만날 때마다 천안소망의집의 존재 가치와 시설 운영에서 오는 보람으로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를 잊은 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대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재미있고 활기차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설립자에게, 하루 24시간은 너무나 짧기만 합니다.

또한 퇴소자들의 자조모임이 3월에 한번 씩 있어 그 뒷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 중 입소기간이 지나고 본가로 귀가한 분들이 괴롭히던 가족이 변화 하였다고 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면 더할 나위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소망, 희망, 축복의 집

간혹 소망의 집에서는 시설장의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 고생하는 내담자를 대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로 시설의 권한 밖의 일인지라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소망의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만이 사용하고 축복받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더욱 더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주여성의 상처와 갈등의 치유 처 모이세 이주 여성의 집



전국에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는 모이세 이주 여성의 집을 포함하여 단 두 곳.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주 여성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공간을 소개한다.

Q. 모이세라는 기관 명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뜻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외국 땅에서 고생하며 자신의 민족을 해방으로 이끌었던 구약성서의 모세 성인을 라틴어로 '모이세'라고 합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곧 우리주변에서 굶은일을 하고 있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들을 뜻하며,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공생하며 함께 모이자는 뜻입니다.

Q. 여성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모이세'의 설립목적은 외국인인 내국인의 관계형성을 위함이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 환경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의료지원과 심리적, 영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문



화생활을 통한 자기개발과 한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켜주며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 모이세가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대전 모이세와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 모이세, 모이세 이주여성쉼터가 설립 목적을 같이 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쉼터 지원 대상의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세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 간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하여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긴급보호로 문제해결이 될 동안 무료숙식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안전보호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전문통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질병 및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활동도 하고, 그 외에도 출입국 지원 서비스, 심리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 서비스, 예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기능 및 문화이해교육 등의 활동으로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주 여성의 인권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05년 5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혼인 10쌍 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35,447건으로 2003년 25,658건보다 38.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학적인 동향으로 미루어볼 때 외국인과의 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은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국내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2)비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살더라도 2년이 경과해야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결혼의 고유한 기능을 벗어나 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문화가 다른 많은 이주여성들이 2년이 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의사소통 단절 및 지원자의 부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상처를 받아 자존감의 상실과 무력감, 거부감, 허탈 및 분노, 증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수반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법적 권리나 공적 지원 체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모이세 이주여성의집은 이와 같이 한 구인과 결혼해 많은 문제를 가진 이주여성들이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차원의 사회복지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중한 상담과 성매매 피해 지원을 통해 피해여성의 자아의식을 되찾다.

성매매 피해상담소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 빌딩 3층의 사무실. 바로 앞에 유흥업소를 마주한 이곳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힘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좌절의 순간,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는 그들. 성매매 없는 밝은 세상을 위해 늘 바빠 뛰어다니는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를 소개한다.

Q. 안녕하세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성매매근절과 예방활동을 하면서 구세군 정신 가운데 거리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사회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임에도 직원들과 함께 기분 좋게 일하고 있는 소장 서정옥입니다.

Q. 여성인권기관이 으레 그렇듯 성매매 상담소인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의 설립 또한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관의 성격과 설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문제에 대한 집결지 등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현장방문상담, 법률, 의료, 시설연계 및 감금, 강요 등 여성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여 피해여성들의 자의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2003년 성매매방지법이 입법화될 즈음 천안시 구세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던 천안역의 천안여성·아동상담소에서 성매매피해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Q.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지 소개해주시지요.

저희 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우리나라 유흥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돕는 센터로 사무실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직원들이 상담, 홍보, 교육, 프로그램 업무로 나누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성적 쾌락 문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다양한 성산업지(집결지, 식품접객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풍속관련업소)에서 착취, 감금,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이러한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여명의 여성들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들에게 300회기 이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지역사회 및 대학교에 60회기 이상 성매매예방 캠페인과 3일간의 대천해변 캠페인, 성매매방지법 기념 워크숍과 캠페인, 900회 이상의 성산업지 및 집결지 홍보를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Q.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성산업지의 유흥업소 및 집결지 현장을 다니며 상담하고 홍보하면서 상담센터의 업무 특성상 피해여성들을 긴급 구조하는 시간들은 대다수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업무를 보는 직원들과 저





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법망을 피하는 사각지대에서 피해 받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일을 하니 밤 시간을 다녀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상담하여 성매매로 인한 강압적 채무나 선불금등의 형사, 민사 법률지원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성산업지 재유임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을 통해 성매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상담지원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사회에 성매매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고치도록 하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현황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일상화된 성매매가 비윤리적인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매매근절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Q. 독립한 이후 지역에서 몇 년 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사연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 선불금에 의해 도망 다니다가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긴급 체포되는 상황으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달간 구치소를 다니며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보호 처분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구치소에서 나와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하였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진심으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의 계획과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에도 지금까지 해 온 상담, 교육,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특별히 충남지역 신·변종 성매매 업소 구제활동과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알릴 것입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 홍보활동을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충남지역사회에서 여성폭력이 축소되고 근절되어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현실과 성매매의 비윤리적 범죄성을 알리는 사업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우리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는 앞으로도 도움을 바라는 여성들이 센터를 통해 힘을 가지고 희망과 꿈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성매매 STOP

희망의 날개를 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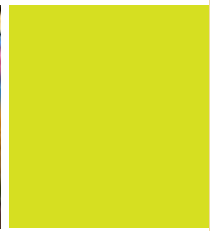
당신이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을 용납할 때,
당신이 성산업지의 유흥접대문화를 방관할 때,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을 사고파는 범죄행위를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이
성매매 없는 행복한 사회에서
서로의 인권이 존중받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매매 stop! 성 구매 no!, 성매매 없는 밝은 세상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Tel. 041) 575-1366 / 010-4873-1362 Fax. 041) 575-1344 Home page: www.ddd3.co.kr E-mail: ddd3@hanmail.net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9-6 영진빌딩 3층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동참

충남 성폭력 상담소

상담전화 041)564-0027 사무전화 041)564-0026 Fax. 041)564-0040 E-mail : wvoice@chol.com
(우)330-0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9-13번지 2층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열린 공간

충남 성폭력상담소는 여성부와 충청남도,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을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8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는 여성들이 모여 충남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문을 열었다. 현재 지역 여성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뜻을 다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들에게는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에는 밝은 가정문화,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 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양한 자원활동 진행

충남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피해 시기나 정도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에 관한 모든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정폭력, 외도, 시집과의 갈등, 이혼 등 가정 내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이 자기를 계발하고 보다 당당한 사회인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여성상담원 교육과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강연회, 워크숍,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며 가정과 사회전반에서 행사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여성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사회여론화·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계간지 「여성의 소리」를 발간하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를 제작·배포 하고 상담사례집, 연구보고서 등을 발행하는 일도 한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안마련을 모색한다.

연 1회 연극이나 콘서트 등 문화행사, 일일차집이나 바자회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인 “여성쉼터”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및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살기 좋은 복지도시 천안네트워크 등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조속히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 상담 이후 필요시 의료 및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좌절 지켜볼 때 가장 힘들어...

시설 운영을 하며 힘들었던 점을 묻자 이를 충남 성폭력 상담소장은 이렇게 답한다.

“성폭력피해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정이나 법률상의 한계로 도움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분들이 포기하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 등을 옆에서 지켜 볼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통하여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일 때 힘들었던 점을 잊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아름다운 동행

성폭력피해여성의 숫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성폭력상담소는 피해 여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소외여성, 특히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보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쉼터로, 또는 안정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충남성폭력상담소가 끝까지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며 치료할 수 있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최대 규모의 향토축제

2010 금산인삼축제

인삼의 기운 받고 다들 건강해지세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축제, 전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산 인삼축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이하여 지난 9월3일에 개막, 9월 12일까지 총 9일 간의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향토 체험마련을 통해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금산 인삼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본다.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 금산인삼축제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꼽힐 정도로 그 규모와 명성이 자자한 전국 최대의 향토축제다. 금산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삼을 고장에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인 삼장제를 지냈는데 지금의 금산인삼축제는 이 삼장제를 현대적인 조화를 통해 전승 군민 축제로 발전시킨 것이다.

금산 인삼축제는 1981년 지역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 인삼의 주산지로서 인삼의 본질과 효능을 규명하여 널리 선양하고 인삼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을 통해 소비를 창출, 금산인삼을 널리 알리고 인삼의 종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일조를 기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금산 인삼축제는 현재 전국 최고의 산업형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불리고 있다.



2010 금산인삼축제

다채로운 행사, 인삼축제 속 볼거리 '풍년'

지난 9월 3일 개막한 2010 금산 인삼축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해진 만큼 인삼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금산인삼관, 건강체험관, 인삼 교역관, 금산 명의관, 장생마당, 인삼마당 등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거리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과 인삼을 소재로 한 먹거리가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특히 주제관인 건강 체험관에서는 사상체질 감별, 홍삼팩 마사지, 홍삼 족욕 체험, 홍삼 팩 마사지, 미래로 보는 나의 건강, 금연금주 절주소개, 인삼 혼증과열체험, 모래찜질, 소화제 만들기, 한방차 시음, 향첩 만들어가기, 노인생애체험 등의 다양한 대체의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금산인삼관에서는 풍수인관, 건강 생애관, 인삼 약초관, 상도관, 인삼 음식관, 계영배 체험, 분재야생화 전시, 한방화장품 메이크업 쇼, 인삼약초 세밀화 전시 등을 통해 이번 금산인삼축제의 테마인 '건강'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인삼 교역관에서는 인삼제품전시 판매홍보, 바이어초청 수출구매 상담회, 인삼 라이프쇼를 열어 금산인삼축제를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 축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게 했다.

금산 명의관에서는 이혈 체험, 사양침 체험, 천연화장품 만들기, 한방차 만들기, 인삼비누 만들기, 관상으로 보는 건강진단 등의 흥미 위주의 활동을 마련해 인삼축제는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도록 하였다. 장생마당에서는 재치 있는 MC의 진행으로 관광객들의 노래자랑이 열렸고 떡 매와 인삼을 소재로 한 마당극도 무대에 펼쳐졌다. 또한 강처사 이야기를 현대적 요소와 결합해 재구성한 인삼마당극에 이어 인삼주를 활용한 각종 카테일 쇼가 연출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10 금산인삼축제

인삼마당은 인삼민속촌 체험프로그램으로 인삼파종과 인삼의 재배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삼장을 직접 꾸며보고 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삼장제를 드리도록 하였다. 특히 인삼 캐기 체험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였는데 성별, 국가, 나이를 떠나서 한 마음으로 농기구를 손에 들고 인삼을 직접 캐며 홍삼을 만들거나 인삼주를 담그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이밖에 축제장 곳곳에서는 전통저울로 인삼무게 달아보기 등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과 인삼마당극,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축제기간 동안 금산 인삼약령시장과 수삼센터 등에서 인삼 관련 건강식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계인의 축제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2011년 9월 개막이 예정되어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가장 한국적인 세계인의 축제'를 목표로 삼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는 인삼의 세계최대 집산지인 금산의 인삼을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에 인식시키고 가치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금산인삼축제는 20년이 넘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세계인 속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百濟

성공적 개최를 이룬 2010 대백제전 백제의 혼을 되살리다

술한 화제와 감동을 낳으며 30일간의 대장정을 펼쳤던
2010 세계대백제전이 지난 10월 17일 그 막을 내렸다.
9월 18일, 화려하게 개막식을 연 세계대백제전은 전 세계 28개 나라에서,
또한 전국에서 37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내면서
'백제'를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30일간의 대장정,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2010 세계대백제전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장이었다.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백제의 유물들이 아쉬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백제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구성하여 그 시대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가까이서 보고 듣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하겠다.

특히 수상공연장에서 펼쳐진 뮤지컬『사마이야기』는 무대의 화려함 속에서도 전쟁 중에 놓여있는 백제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을 심도 있게 전달하여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가장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백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백제 역사문화관에는 오늘날 한일 양국 간의 역사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상인 칠지도(七支刀)를 특수조명과 디오라마로 실체화하여 소개함으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백제헌상설, 동진하사설을 일축시켰다.

개막식
개막식
공남지



이 외에도 4개로 구성된 각 전시실에는 백제의 생활상과 문화양식, 변화과정, 다른 나라 문화에 영향을 끼친 양식 등을 소개하는 유물이 전시되어 백제가 문화적 의식이 높은 나라였으며 그 당시 단연코 최고의 예술적 감각을 지녔음을 상기시켰다.

이 밖에도 백제의 성곽축조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놓아 우리나라 조상들의 축성술에 대한 존경심을 일게 하거나, 무령왕릉의 내부를 생생히 재연해냄으로서 백제에 대한 자긍심과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했다. 3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 2010 세계대백제전은 그 규모와 화려함 뿐 아니라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이를 통해 역사에 무지한 이들에게 자긍심, 교훈을 심어 줄 수 있었다는 데에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69만여 명 관람, 공전의(空前) 대기록

2010 세계대백제전의 총 방문객은 369만 명, 그 중 유료입장이 157만 명, 무료입장이 212만 명, 1일 평균으로 산출하면 하루에 12만 명, 외국인이 20만1천명이 대백제전을 찾은 것으로 기록됐다. 유료 입장객 157만1천38명에 입장권 폭 18.5cm를 곱하면, 무려 290km를 넘는다. 유료 입장권만으로도 이를 한 줄로 곧게 잇는다면 대전에서 서울을 두 번 가는 거리와 맞먹는다.

또한 폐막까지 방문한 총 차량 대수는 49만 5천여 대로 소형차는 47만 3천여 대, 대형차는 2만 2천여 대로 그야말로 '진기록', '대기록'을 낳았다.

이러한 대기록은 개막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홍보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사전 제작한 브로셔 등 각종 홍보물은 대략 270만 부. 이 가운데 행사장에 비치해 배포한 100여만 부를 제외하면 170만부를 홍보용 우편물로 발송한 셈이다. 이 우편물 중에 국내는 2천438곳의 단체나 개인, 국외는 324곳에 이르는 것으로 올 1월부터 하루 평균 10곳 가량씩 꼬박 보낸 꼴이다. 이 때문에, 우편 발송 담당자는 이를 위해 올 초부터 행사 폐막 직전까지 눈코 뜰 새가 없었다. 행사가 임박할 무렵부터 개막 직후에는 하루 100여 곳에 발송하는 우편물 폭주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3개 외국어 통역 59명을 비롯해 수화, 청소 등에 걸쳐 공주 154, 부여 287명 등 하루 500명씩 연인원만도 1만5천명에 이르는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도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세계 속에 새겨진 '백제'

2010 세계대백제전은 '초대형 명품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놀라운 진기록들을 만들어냈다.

그 뿐 아니라 22개 대표 프로그램과 70개 시·군 프로그램 등 92개의 프로그램을 앞세워 장장 30일간 시공을 초월하여 백제의 혼을 되살렸다. 프로그램과 행사, 공연이 많았던 대규모 축제였던 만큼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으나,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떨친 동시에 우리의 역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랑스러운 기회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해외관광객의 방문이 국내 관광객과 비등한 수치를 보였다는 사실은 '세계 대백제전'이 백제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문화양식과 고고한 정신을 세계인 속에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대백제전은 성공적 개최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인에게 백제의 문화, 정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수상공연 사마이야기
퍼레이드
호상놀이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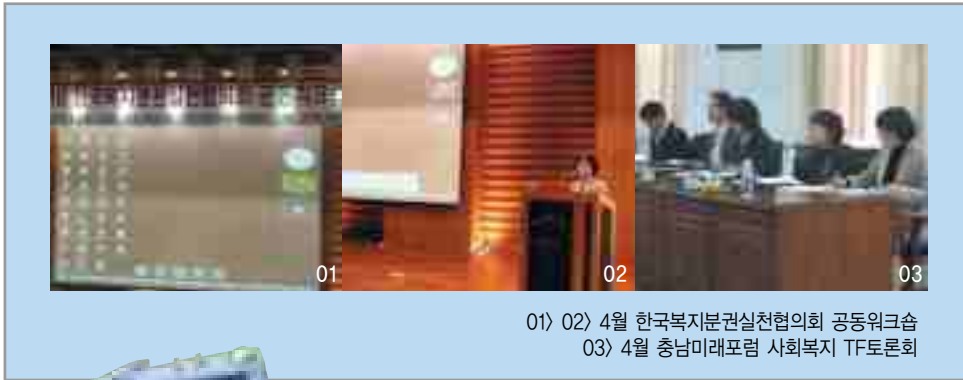
05



04

01) 5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중앙자활센터 협약체결식 02) 03) 2월 KFAW 및 CWPDI 교류사업
04) 05) 3월 2010다문화한국어강사 양성과정

KFAW 및 CWPDI 교류사업 부터, 미래포럼, 중앙자활센터와의 연구협약체결, 민경자 신입원장의 취임, 성별영향평가 시군순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본원의 2010년, 1년 간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02) 4월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공동워크숍
03) 4월 충남미래포럼 사회복지 TF토론회



충남여성을 위한 움직임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활동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월

- KFAW 및 CWPDI 교류사업

3월

- 2010다문화한국어강사 양성과정

4월

-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공동워크숍
- 충남미래포럼 사회복지 TF토론회

5월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중앙자활센터 협약체결식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요활동



01) 7월 다문화포털사이트 충남다올림 기획취재 02) 03) 8월 여성위원 연찬회
04) 9월 민경자 원장 취임 05) 11월 성별영향평가 시·군순회교육

KFAW 및 CWPDI 교류사업 부터, 미래포럼, 중앙자활센터와의 연구협약체결, 민경자 신입원장의 취임, 성별영향평가 시군순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본원의 2010년, 1년 간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9월 여성단체 임파워먼트 교육
02) 03) 9월 충남미래포럼

▶ 9월 민경자 원장 취임



충남여성을 위한 움직임

20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활동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11월 성별영향평가 시·군순회교육



7월

- 다문화포털사이트 충남다올림 기획취재

8월

- 여성위원 연찬회

9월

- 민경자 원장 취임
- 여성단체 임파워먼트 교육
- 충남미래포럼

11월

- 성별영향평가 시·군순회교육

충남보육정보센터



충남보육정보센터는 2003년 11월 25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여 지난 7년여 간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진행을 통해 도민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충청남도 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충남보육센터의 발자취

2003년 11월 25일 개소한 충남보육정보센터는 충남 소재 942개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보육정보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앙 및 시·군간 보육정보망 연결 등 충남지역 보육의 종합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충남보육센터는 현재 손지연 센터장과 공채를 통해 발탁된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운영·교육·상담홍보팀 등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여성·보육문제를 통합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보육정보 제공,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보육의 정보화를 위한 구심체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03. 06.18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충청남도)
- 2003. 06.30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3. 07.14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협약체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3. 07.22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임용 승인 신청(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3. 07.29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임용 승인(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3. 11.25 센터 개소
- 2006. 08.01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재위탁운영 협약체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9. 05.01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센터장 손지연 취임
- 2009. 08.01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재위탁운영 협약체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2010 주요 동정

효과적인 학부모 상담 기법 교육 실시

지난 3월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는 효과적인 학부모 상담 기법이라는 주제로 부모 상담의 기본 원칙과 상담의 진행방법,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상담 방법 등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주 내용은 부모와의 만남에서 교사의 전략, 교사-부모 만남 전에 관찰해야 할 사항, 상담을 위한 유아 관리, 상담을 위한 학부모 관리 등 상담 기법에 대한 이론 및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질적 교육으로서, 충청남도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보육교사의 영유아를 위한 자연생태교육 실시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2010년 4월 3일(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보육시설 종사자 115분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영유아를 위한 자연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책활동이나 실외활동 시 만나는 자연에 대하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자 교사에게 다양한 방법의 교육활동 계획과 유아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오감발달교육

본 교육은 2010년 5월 11일(수) 천안축구센터 다목적 홀에서 충청남도 보육시설 30분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교육은 김연숙(오감발달교육연구소 소장)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및 베이비 마사지 실습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7회 충청남도 우수보육 교재·교구 작품 전시회

지난 10월, 본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보육시설 종사자가 개발하여 출품한 우수한 교재, 교구의 평가 및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교재·교구의 정보 공유를 통한 원활한 보육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행사에는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는 이 외에도 2010년에 Educare Academy 보육시설 안전관리교육, 충청남도 여성 발전복지 지원 사업 임파워먼트교육, 다문화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 연령별 표준보육 과정의 이해와 적용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보육 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2월 13일 개원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은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문교육장으로 개원 이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기본적 인성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충남어린이 인성학습원의 발자취

- 2002. 09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설립 · 운영방안 연구용역
- 2003. 04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설립 · 운영 기본계획수립
- 2004. 03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건립 추진계획수립
- 2004. 12 계룡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 고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건립계획 변경
- 2005. 03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세계용역 발주
- 2005. 10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 2005. 12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협약체결(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 2005. 02.13 충청남도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충청남도)



주요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흙과 함께 생활하며 인성함양을 기르기 위해 오전 활동으로 숨 쉬는 향아리 동화 듣기, 토우 만들기, 흙 던지기, 흙을 가지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마음껏 밟아보는 발바닥 놀이, 과녁을 향한 흙 던지기 등의 오감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체험장(5종), 야외체험장(8종)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만 3~9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특성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자연체험, 문화예술체험, 특별체험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전통 문화와 예절, 질서인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성학습원은 어린이를 위한 각종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물론 부모 역할 훈련,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



시설안내



- 인성학습원동-실내 교육실, 사무실, 대강당, 보건실 ❶
- 교통안전놀이장 ❷
- 궁도장 ❸
- 점도체험장 ❹
- 모래놀이장 ❺
- 동굴미로 ❻
- 분수대 ❼
- 숲체험의 길 ❽
- 생태연못 ❾
- 야생화단지 ❿
- 꽃사슴장 ⓫
- 토끼장 ⓬
- 조류관람장 ⓭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는 2007년 6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전문가 관리자 육성과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지속적인 자원봉사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충남자원봉사센터의 발자취

- 1997. 1. 8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 시달(내부무)
- 2003. 4. 14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계획 수립
- 2003. 6. 25 도 자원봉사센터 개소 · 운영형태 : 도 직영(자원봉사담당 겸임) · 사무실 : 도의 새마을과 내
- 2003. 7. 21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발령
-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2006. 8. 21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 2007. 1. 2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
- 2007. 3. 31 제1기 위/수탁 협약 체결 (충청남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7.4.1-2009.3.31)
- 2007. 4. 1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설립(민간위탁)
- 2007. 6. 20 초대 김인식 센터장 취임
- 2007. 6. 21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개소식
- 2009. 3. 31 제2기 위/수탁 협약 체결 (충청남도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9.4.1-2012.3.31)
- 2009. 7. 22 제2대 박봉우 센터장 취임



서천군 한사랑 봉사회 활동

지난 6월, 서천군 한사랑 봉사회는 기산면 화산리 독거노인의 거주 공간에 화장실 개보수 및 정화조 & 싱크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조립식 건물로 화장실이 없이 생활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천군 한사랑 봉사회는 정화조를 묻고 변기를 방안에 설치하였다. 또한 간단한 그릇조차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방안에 할머니의 키에 맞는 싱크대를 설치하였다.

청소년 배움터 사업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이번 교육 사업은 지난 4월 도내에서 희망하는 시군센터의 신청을 받아 6곳의 시군센터를 선정,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7월 10일 청소년 배움터 사업을 진행했다.

청소년 배움터 사업은 각 지역 센터의 사업신청을 통해, 지역별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며,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령고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함께 안전교육, 재난구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현장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채움으로, 종일 교육임에도 참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 청소년 배움터사업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자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제5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개회

제5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가 10월 29일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의 이해와 체험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의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자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도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문화공연과 개회식, 참여와 화합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는 16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홍보관, 자원봉사 상담 및 안내, 자원봉사활동 체험관 등 총 44개의 부스가 설치 운영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 참여 한마당'에서는 노래와 합창, 에어로빅, 미술, 전통무용, 색소폰연주 등 시군별로 다양한 무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지난 12월 9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 도내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자원봉사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우수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 박봉우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개회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격려사(이성진 도의새마을과장 대독)와 식후공연 순이었으며, 한 해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뜨겁게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수상자는 총 46명으로, 다양한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올해만 10여 차례가 넘는 충남 사랑 자원봉사 행사를 진행했고, UCC 자원봉사자 교육, 도·군 감담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일구어내는데 일조하였다.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 민경자 신임원장, 현장의 소리를 듣다.



여성단체기관 초청 간담회



지난 10월 19일 본원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단체·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 간담회는 신임원장으로 취임한 본원의 민경자 원장이 도내 여성단체·시설·기관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충남의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구축을 통해 본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여성단체·기관장 초청간담회에는 맹은섭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천안여성회, 천안 여성의 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충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다양한 성격의 여성 활동기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활동내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충남 사회복지 직능단체 초청간담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9월1일 제5대 민경자 원장 취임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기초한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을 목표로 민-관 및 도민과 소통하는 개발원, 여성·복지 분야의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원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10월 18일 본원 사회복지팀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충남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시는 도내 최초의 시도로, 본원의 제5대 원장 취임에 따라 본원과 충남 사회복지직능단체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내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충남도내 사회복지 분야인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복지 분야 등 직능단체장과 본원 원장 및 사회복지팀 연구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민경자 원장이 좌장이 되어 이끌어 갔으며, 사회복지팀 최은희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초청간담회를 통해 충남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별 업무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지역사회 내에서 직능단체 간 업무협약의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통된 이슈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 방안, 복지시설 내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 고유 복지업무의 정체성 및 민-관 네트워크에 대한 점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본 간담회는 사회복지 분야의 직능단체대표와 본원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현안과제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도 세부 사업계획(안)

01

연구사업 【 10件 】

구분	연번	과 제 명	연구자
기본연구	1	국가 성평등지표로 본 충남의 성평등 현황 분석	황창연
	2	지역기업체별 여성인력 수요조사	이창익
	3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김종철
	4	성매매방지 및 탈성매매 여성의 효과적 자활을위한 정책 방안	김영주
	5	충남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화성
	6	충남 여성노인의 사회적 통합 방안	송미영
	7	충남 다문화가정 자녀실태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우복남
	8	장애인 체육대회 심층성별영향평가	김성자
	9	청소년 시설운영 심층성별영향평가	
	10	충남 보육시설 보육료 운영 실태 및 현실화 방안	최은희
정책보고서	정책보고서 10건		

02

교육사업 【 14件 / 2,516명 】

연번	과정명	교육대상	인원(명)
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도, 시·군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30
2	여성의원 연찬회	도, 시·군 여성의원	36
3	공공기관 미혼남녀 파트너십 개발 과정		30
4	성별영향평가 시·군 순회교육	도, 시·군 공무원	400
5	충청남도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30
6	여성단체장 리더십 교육	도, 시·군 여성단체 회장단	30
7	지역 여성활동가 육성을 위한 시군순회 리더십 교육 (시·군순회 정책토론회와 병행)	지역 여성단체 회원	500
8	학부모 대상 유아기 성평등 교육 (보육정보센터와 공동)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500
9	시·군 순회 자원봉사자 성인지 교육	도내 자원봉사자	500
10	아동복지시설 아동 성교육	아동복지시설 아동	250
11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보수교육	도내 여성관련 상담소 상담원	20
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50
13	의정 모니터 양성 교육	도내 일반여성	60
14	경력단절여성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여성취업매니저 양성	40
		아이돌보미 양성	40



03

연구조성사업 【 12件 】

구분	연번	사 업 명
세미나 & 워크숍	1	개원 12주년 기념 세미나
	2	시·군 성별영향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워크숍
	3	유아기 양성평등 워크숍(보육정보센터와 공동)
	4	여성 귀농인 워크숍
	5	참여하는 충남여성네트워크 구축(참여넷)
교류협력	6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운영 사업
	7	연구협약기관 공동연구 사업
	8	충남 여성 인력개발 실무협의회 운영지원
	9	충남 여성 평생교육 협의회 활성화
교재개발/ 연구역량강화	10	성인지/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11	여성학/여성정책아카데미
	12	콜로키움(연구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04

홍보사업 【 5件 】

연번	사 업 명
1	홈페이지개편
2	뉴스레터운영
3	「충남여성」발간
4	다문화종합포털사이트 운영·관리
5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제작



델마와 루이스 1991

잃었던 자아를 되찾다

'델마와 루이스'는 대체로 여성이야기를 한낱 흥미 있는 소재로서 선택화 시키거나 상업화 시키는 데에 주력한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심히 놓쳐 버리거나 당연 하게 받아들이는 여성의 현실에 대해 새삼스레 생소한 느낌을 주는 영화이며, 갖가지 의문과 고민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이다.

주인공인 델마가 수동적이던 모습에서 여행 중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루이스 못지않은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기존의 틀에서 깨어나고 능동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모나리자 스마일 2003

정해진 틀을 깨고 자유를 심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여성판이라 일컬어지는 영화로 1950년대 초반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명문 여학교 '웰슬리'에 부임한 한 젊은 여성 교수와 그 학생들의 갈등과 이해를 통해 보수적이고 억압된 시대상 속의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발견해 갈 것인지 자유를 개척해 가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놓은 내용이다.

자유롭고 진보적인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인 캐서린 왓슨은 동부의 보수적인 여자대학 웰슬리의 미술 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곳에서의 갈등을 예상하면서도 그녀가 가졌던 소망은, 명문교인 이곳의 새로운 변화.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구속이나 의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 원하는 길을 택해온 캐서린에게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프게 느껴진다. 교과서와 전통의 틀에 갇힌 획일적인 시각만을 강요하는 교육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처음엔 그녀를 거부하던 학생들도 어느새 그녀가 전하려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세상의 강요에 따르기만 하던 수동적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